

2008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2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풀장환상2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2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표장환상 2



풀장환상 2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 2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09. 1

사진 · 글 윤혜숙, 황혜연, 김소연
디자인 위례디자인
인쇄 형제출력인쇄

© 성남문화재단

목차

- 8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 12 은행나무 이야기
- 14 은행나무를 닮은 사람_ 문화배움터 지킴이 강현희
- 18 전체 프로젝트 일정 소개

탐색활동

- 22 오리엔테이션
- 24 어린이배움터 내만의 책만들기, 어린이풍물, 어린이밴드
- 36 주부배움터 북아트, 한지공예, 퀼트, 사진
- 52 음악이 뛰노는 어린이 베틀시장
- 60 [생태이야기 1] 은행주공 풀들의 이야기

여름 가지 땀기

- 70 어린이배움터 내만의 책만들기, 어린이풍물, 어린이밴드
- 82 주부배움터 북아트, 한지공예, 퀼트, 사진
- 98 신나는 방학특강 어린이영상제작, 어린이 동양화
- 106 [생태이야기 2]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은행주공의 곤충이야기

가을 결실 맺기

- 116 장수사진 촬영과 포토줌마 사진전시
- 120 전시마당 북아트, 내만의책만들기, 퀼트, 한지공예
- 128 전통혼례
- 130 공연마당 어린이풍물, 어린이밴드, 시랑방문화클럽
- 136 리본, Re-Born 은행주공 다시 태어나다
- 140 [생태이야기 3] 이야기가 있는 은행주공의 나무들

겨울 배움터 겨울나기

- 150 배움터 지속모임 소개
- 156 은행주공 부녀회 후기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생활문화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배움터

꽃샘추위를 헤집고 봄의 기운이 움트려고 꿈틀대던 2008년 3월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사무실에 부녀회분들과 함께 둘러앉았다. 풀장환상의 2008년 지속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 주체, 즉 누가 준비하고, 누가 참여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먼저 명확한 답이 필요했고 은행주공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부녀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지역 문화예술활동가들이 지원하여 마을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부녀회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나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준비과정부터 철저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은행초등학교, 주민생협, 마을도서관, 풀장환상 등 지역에서 있었던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문화예술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은행주공 아파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2개월 가량의 논의와 고민 끝에 주부를 위한 쿨트, 한지공예, 북아트, 사진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책 만들기, 어린이풍물패, 어린이밴드 등의 강좌를 결정하였으며,

은행주공의 자랑인 생태환경의 특성을 살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교육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강사도 가능하면 은행주공 주민들을 중심으로 섭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지공예, 나만의 책만들기, 생태교육 등의 강사를

주민속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마을축제 때는 지역주민인 우리소리연구회 '솟대' 회원들의 통소와 사자춤 등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지속 가능한 문화배움터

강좌를 준비하면서부터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동아리활동 지속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각 강좌를 5~6개월 이상 지속하여 문화배움터 종료 후 동아리가 형성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각 동마다 포스터를 게시하고,

엘리베이터마다 홍보물을 붙이면서도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5월 오리엔테이션을 거치며 지울 수 있었다.

부녀회 사무실을 가득 메운 주부들은 각 강좌의 진행 계획을 듣고 자신의 요구를 제안하기도 하며 강의 준비를 하였다.

그 후 모든 강좌를 매주 정기적으로 6개월 가량 함께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주부들이 더 결합하면서 강좌마다 활기가 넘쳤다.

10월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 난 후 대부분 강좌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었다.

사랑방문화클럽과의 함께 한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의 준비와 진행,
마무리 등 대부분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이끌어갔다.
하지만 경험의 부족으로 강사 섭외와 문서 작성, 홍보물 제작 등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실무 행정적인 점을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보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코디와 강사 역할을 지원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서류로 정리하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것을 행사 내내 도와주었으며, 많지 않은 강사비를 쪼개어 밴드 악기와 풍물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흔쾌히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자율학습, 우리마당, 늘봄, 수목향기 등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어린이 밴드, 어린이 풍물, 주부 사진, 켈트를 비롯하여 여름방학에 진행된 동양화, 영상제작 등 특강까지도 강사역할을 맡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프로젝트 참가 팀들이 은행주공 풀장을 찾아와 주민들과 함께 합창, 만돌린, 풍물, 색소폰 등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주민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 은행주공 어르신을 위한 전통혼례를 진행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랑방문화클럽과의 만남은 은행주공 문화배움터가 끝난 후 사진반 '포토줍마' 를 비롯해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풀장에서 공연할 때 무대 앞에서 천진난민하게 음악에 맞춰 춤추던 아이들,
이웃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지끈지 짙은 색시와 함께 혼례를 치루며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시던 팔순 노인,
한 여름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은행초등학교 운동장 구석 나무그늘 아래에서
땀 흘리며 장구를 두드리던 아이들,
밤새 한지와 씨름하며 오리고 파낸 꽃 문양을 뒤쳐진 동료에게 선뜻 내주며 함께
화초장을 만들던 아주머니,
마을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자리를 어둠이 내릴때까지 뒷정리 하고
풀장을 나서시던 부녀회 임원들,
사진 강좌를 통해 배우고 익힌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을 하고 액자를 들고 노인정을 찾아 나눠 주시던 모습.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아파트 프로젝트로 '풀장환상' 을 펼치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주민 스스로의 지속적인 문화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까?' 에 대한 희망의 싹들이 2년차의 풀장환상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에서 움트는 걸 보면서 2009년을 준비하는 배움터 식구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다.

300년 은행동을 지켜온 은행나무가 우뚝 솟은 동네에는 그렇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서로 나누고 공헌하는 생활문화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300년 은행동을 지켜온

은행나무 이야기

옛날에 지금의 104동 아래쪽에 있는 수령 300년의 큰 은행나무를 보고 멀리서도 찾아왔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은행동이였대요. 은행주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파트 단지 내에 은행나무가 아주 많아요.

은행나무는 지구에 몇 번이나 덮친 빙하기를 견디고 살아남았고, 공룡의 화석과 같이 화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화석나무라고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일가친척 하나 없는 1속 1종의 식물이에요.

은행나무는 잎사귀가 넓어서 활엽수 같이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침엽수로 구분해요. 보통은 침엽수와 활엽수를 잎의 모양으로 나누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씨앗이 열리는 방법인데, 은행나무는 밑씨가 침엽수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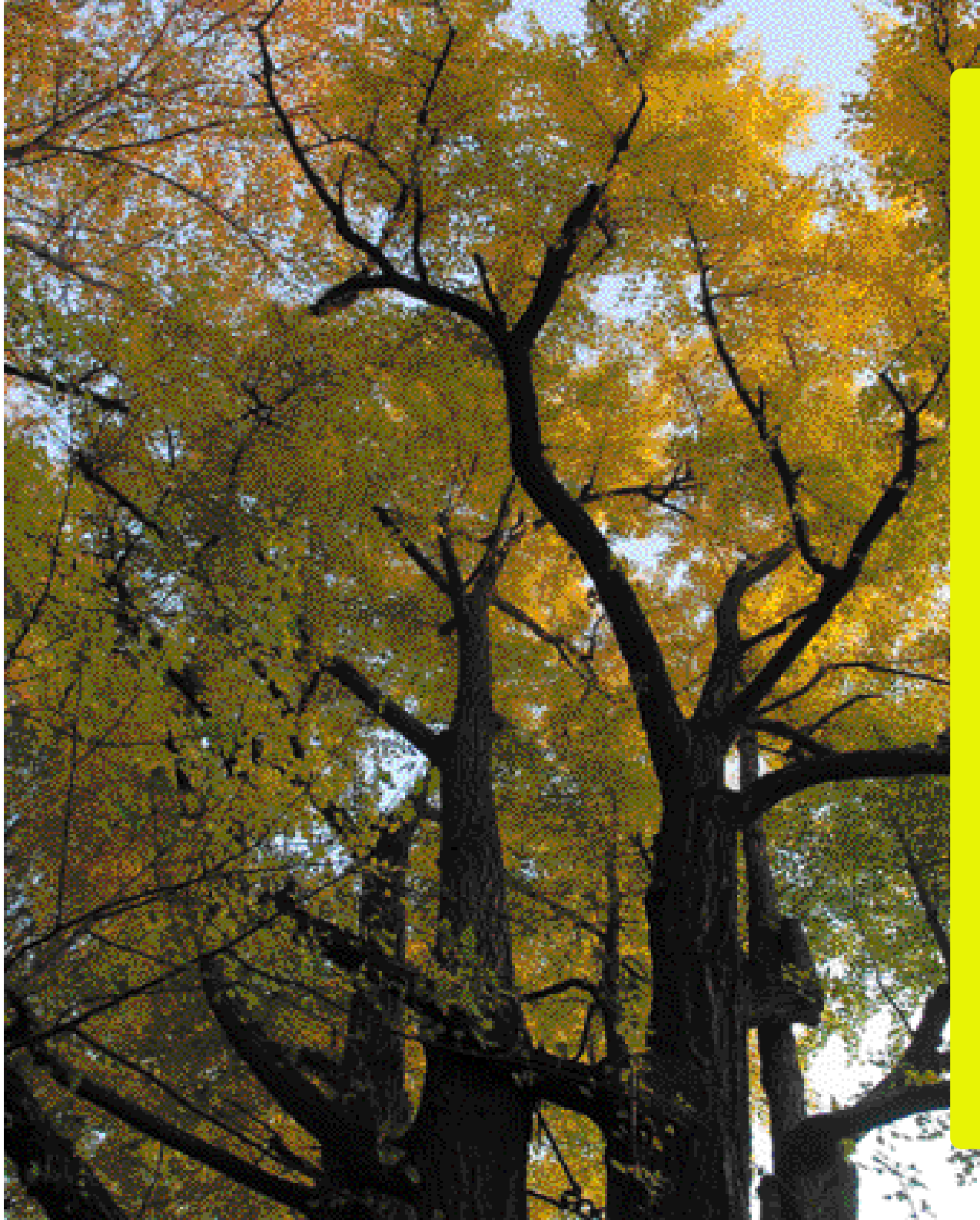
은행나무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근처에 암나무와 수나무가 같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은행나무 수나무에서 피우는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암나무의 밑씨 근처에서 도달하면 꼬리를 내어 스스로 움직여 밑씨를 찾아가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하여 가을에 노란 잎을 주워다 놓아두면 바퀴벌레가 없어지고, 책갈피에 끼워놓으면 종이 슬지 않는다고 해요.

은행동 이름의 유래가 된 큰 은행나무는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개의 나무가 붙어 있는 연리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글_ 생태활동가 김현주(은행주공아파트 주민)]



은행나무를 닮은 사람

문화배움터 지킴이 강현희

1700년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영조, 정조 시대에는 어린 나무였을 이 은행나무는 300여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없이 많은 기쁨과 슬픔, 분노와 행복 등을 머금고 오고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이곳은 원래 광주군 단대리였는데 이 은행나무가 정자가 되어 이 밑에서 많은 사람이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이 근방을 은행정이 혹은 은행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성남시가 발전하면서 은행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멀리서 본 은행주공의 첫인상.

남한산 자락을 망토 삼아 둘러메고 성남 시가지를 바라보며 주택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빌라를 보듬은 채 저 높이 솟아 있는 은행주공은 무척 도도해 보이기도 한다.

그녀의 첫인상.

어딘가 인텔리적이면서 무척 까다로운 듯 한 느낌이다. 안경너머 눈빛은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듯하고, 미소를 머금은 채 아무지계 다문 입술은 누구에게든 할 말은 하고 말 듯 한 기세다.

그녀는 대학시절 동아리 모임을 하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 남자를 꼼짝 못하게 휘어 잡은 채 26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여 태홍, 민정 1남 1녀를 낳았다. 큰 아들인 태홍이가 학교에 들어가던 해인 2003년 가을 푸른 숲과 어우러져 있는 은행주공이 맘에 들어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려 했을 뿐인데 깔끔한 일 맵시는 결국 그녀를 부녀회에 발을 딛게 만들었고, 부녀회 임원 중 막내이면서도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서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은행주공의 한 칸에 버려진 채 썩어가고 있던 풀장. 2007년 그곳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해 맑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구르는 '풀장환상' 이 시작된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손길로 인해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던 풀장과 담장, 그리고 계단에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치듯 지났던 작은 꽃 한송이, 풀잎 하나, 매미 허물 등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다시 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아줌마들의 수다와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그녀의 손길이 닿아있었다.

2008년에는 그녀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 주민들과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혹여 주민들이



26세 단란한 가정을 꾸리다



시जन 뒤뜰이



마을축제 준비를 위한 반장모임

불편할 새라 이리뛰고 저리뛰며 하나부터 열까지 챙긴다.
밴드하는 어린이를 직접 차에 태워 연습실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장구와 북을 들고 은행초등학교로 옮기고, 행사 때마다 팔 걷어 부치고 풀장을
청소한다.

한지공예 모임이 있던 어느 날 “같이 밥이나 먹죠”하며 집에서 밥과 카레에
밀반찬까지 들고 나온다. 자신이 속해 있는 켈트반은 물론 사진, 북아트 등 모든
강좌를 오가며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더러 하라고
해요”하며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한다. “꼭! 많이 힘드신가 보다. 어찌지?”하며
걱정스레 다시 찾아가면 “지난 번에 해야 할 것들 다 처리 했어요”하며 미소를
지어 준다. “휴~” 하고 한숨지면 어깨를 툭 치며 “제가 좀 까탈스러워도 해야
할건 다해요”하며 “동네 일은 누구 한 사람 좋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하는 건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조금씩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랬어요. 조금 지나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겠죠’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 시킨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드디어 동네가 변하고 있다.
그저 조용하던 동네에 풍물소리, 밴드소리가 들리고, 아줌마들이 직접 만든 켈트,
사진, 한지공예, 북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주민들이 무대를 꾸미고,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관객이 되어 문화를 창조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은행주공은 이제 가장 맑고 신선한 환경적인 동네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문화 창조시민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마을축제 곳곳 어디에든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객석 한켠에 앉아 어린이 밴드와 풍물팀의 공연을 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무대와 행사장을 모두 정리하고 어둠이 내린 뒤에야 풀장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한다.

“제발 한 번 만요. 선생님 실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돼요. 한 번도 해본적도 없고 다른 사람 소개 시켜 드릴게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동네 주부를 대상으로 켈트 강좌를 열기로
했는데 강현희 서기를 강사로 모시려고
한 것이다.

한 달 동안의 설득 끝에 은행주공 켈트반 반장인
박은진씨와 함께 상대원 윈다방을 찾았다.

사실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어서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깃 거봐요. 상대원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강의를 가면 갈수록 켈트를

배우는 주부들은 “선생님, 선생님”하며 그녀를
따르고 속제도 칼처럼 해온다.

은행주공에서 보여 주었던 까탈스러움과

도도함이 상대원 시장에서는 자상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어느새 부녀회 서기인 강현희 선생님은

문화기획자, 문화예술실무자, 문화예술강사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었다.



상대원 윈다방 켈트 강사로 활동중인 강현희 서기

전체 프로젝트 일정 소개

3	4	5	6	7	8	9	10
21일 은행주공 부녀회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은행주공 지속사업 신청	11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홍보 및 접수 시작	9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오리엔테이션 30일 플장 대청소 31일 어린이 베품시장 및 사랑방문화클럽 - 문화공헌프로젝트 무빙사운드 팀 공연		21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여름방학 특강 홍보 30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강사 및 부녀회, 성남문화재단 간담회		9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반장회의 27, 28일 어린이밴드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축 제 공연 30일 은행주공문화배움터 마을축제 홍보	11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마을축제 전통혼례 13일부터 각 강좌별 자체 모임 진행
		5월 12일 문화배움터 첫수업		매주 화요일 : 북아트, 한자공예 매주 목요일 : 퀼트	매주 수요일 : 사진반, 나만의 책 만들기, 어린이풍물 매주 금요일 : 어린이밴드		
			13일 은행주공 생태체험	11일 은행주공 생태체험	4일~9일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동양화반, 어린이영상제작반) 풍물반 여름 전수	11일 은행주공 생태체험	10일 은행주공 생태체험

봄 싹틔우기

300년간 한 자리를 지킨 멋진 은행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새싹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 뿌리를 뻗어 한 아름으로도 안을 수 없을 만큼 성장했을 것이다. 우리도 은행나무처럼 한 곳에서 묵직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풀장환상, 새로운 환상의 날개를 달다.

5월 9일 문화배움터 오리엔테이션

은행주공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이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나눔, 재생, 교류를 주제로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문화기획자가
 함께 모여 다채롭게 진행한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무지개빛 환상이
 아직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2008년 봄.
 오늘은 예술과의 만남, 주민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가 시작되는 날이다.
 박찬국 예술감독을 비롯하여 예술단체인 밀머리학교의 스텝 여럿이 도움을 주었던
 2007 풀장환상과는 달리 프로그램 기획부터 홍보, 진행, 예산관리까지 모든 업무
 를 총괄 진행해야 하는 은행주공 부녀회의 막중한 책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이기도 하다.
 이번 해에는 ‘문화배움터’ 라는 이름으로
 주부들과 아이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문화예술분야를 조사하여
 주부배움터인 북아트, 한지공예, 퀼트, 사진반,
 어린이배움터인 나만의 책 만들기, 어린이 풍물, 어린이 밴드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커다란 간격을 두고 둘러앉은 거리만큼 아직은 서로가 어색한 자리.
 참석한 주부들은 무슨 강좌를 신청했는지, 강의 장소는 어디인지 아파트 단지에서
 한번쯤 마주쳤을 낯익은 사람들과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행주공 주민이어서 더욱 친근한 한지공예의 용미자 강사와 은행주공의 생태를
 줄줄 꿰뚫고 계신 생태활동가 김현주 강사, 제일 어리지만 듬직한 청년인
 사진반의 곽대현 강사, 들고 온 가방에서부터 그 안에 물건들이 주인을 보여주는
 퀼트반 조애경 강사의 소개가 이어졌다.



문화배움터에 대한 사업 설명과 강사 소개가 끝나고 각 반별로 모이는 시간.
 이제야 참석한 주부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하긴 이곳이 어디인가.
 바로 주부들의 생활공간이자 활동무대인 은행주공 아파트,
 바로 이들이 주인인 곳이다.

“저는 화요일 오전이 좋아요!”
 “한지공예 준비물은 뭐지요?”
 “이번 생태체험은 언제예요?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옆 동 아주머니들과 같이 들을 강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수강료를 내는 것도 아니니
 이것이 무슨 행운이냐며 2~3개의 강좌에 관심을 보이는 분도 있고,
 아직 수강생이 적은 모임에서는
 이웃의 또래 엄마들에게 홍보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직은 서로가 그리는 문화배움터의 상이 조금은 다른 주민들.
 20차시의 수업이 한 주 한 주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이야기와 사연을 엮어가면서
 그들이 그리는 문화공동체의 모습도 완성될 것이다.
 이제, 뿌리 내리기 위한 그 첫 싹틔움이 시작되었다.



나만의 책 만들기

01

토마토 선생님의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일시 | 2008. 5~1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5시

강사 | 최정희 (남한산초등학교 사서교사)

참여 | 이선경, 이용렬, 한승구, 한용구, 김유정, 김유민, 김위승, 김도현, 김지은, 전형기, 이유진, 곽태인

함께 읽은 책 | 아빠는 미야 <고미 타로>, 겁쟁이 빌리 <앤터니 브라운>

치과의사 드스토 선생님 <윌리엄 그타이트>, 세 강도 <시몽주니어> 등

고민이 있어! 걱정인형아

나만의 책만들기 수업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수업이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수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집 당 3~4명이 움직이는 작년에 이은 인기 수업이다.

“선생님 이름은 최정희예요.
여러분들 외우기 힘들니까 토마토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오늘 수업은 ‘걱정인형’ 책 만들기!

아이들의 걱정을 대신해주는 걱정인형을 소재로 한 동화 <겁쟁이 빌리>를 토마토 선생님 특유의 고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이번에는 ‘걱정인형책’을 만들은 물론 그 안에 걱정인형에게 맡기고 싶은 자신만의 걱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적게 했다.

“저스틴이에요!”

형기는 걱정인형의 이름까지 지었다.

“걱정인형이 잘 때 무서울까봐 야광별을 이불에 붙여줬어요! 야광별이 있어서 저스틴은 무섭지 않을거예요!”

어쩔 저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현이의 걱정인형에는 중국지진, 러시아 전쟁, 미국, 총 이러한 단어가 적혀있다. 6살짜리 아이의 걱정이 지진과 전쟁과 총이라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무서운 세상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찢혔다. 어른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때 도현이의 걱정인형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텐데...

가시복어 알아?

오늘 만들 책은 <노아의 방주를 탄 동물들>이다.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산타할아버지요!”

덱수룩한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진 노아는 아이들에게
산타할아버지로 보였나보다.

“옛날에 옛날에 아주 아주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인줄 알아요?”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 질문에 형기는 당당하게 대답한다.

“네, 알아요! 목요일 날요!”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비가 많이 왔던 것을 기억한 이 대답에 어른들은 한바탕
즐겁게 웃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동물들을 태운 것처럼, 아이들도 커다란 배 모양의 책을
만들어 그 안에 태우고 싶은 동물들을 그려 넣었다.



아이들이 어떤 동물들을 그릴까?

강아지, 고양이, 사자, 코끼리 정도의 그림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래, 캥거루 그것도 배주머니속에 든 아기캥거루까지 꼼꼼하게 그린,
해파리, 가시복어까지 등장했다.

여객선은 창문이 많아야 한다며 창문을 20개나 만든 도현이는 가시복어와
해파리를 배에 태웠고, 출판사 이름까지 써서 작품을 일찌감치 마치고서는 여기
저기 다니며 자기 작품을 자랑했다.

“이건 모야?”

“가시복어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화나면 가시가 쏘 나와요!”

옆에서 승구가 친절하게 가시복어에 대한 설명까지 해준다.

02

덩~덩 쿵! 따! 쿵!

피아노 학원은 많은데 장구랑 북을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쫓겨나고 우리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풍물교실은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은행주공 주민들의 열의에 의해
 탄생한 수업이다.

일시 | 2008. 5~10 매주 수요일 오후 1사~3시
 강사 | 김순중 (풍물굿때 우리마당)
 참여 | 이지원, 임채연, 이재창, 김예원, 박가희, 오승현, 김민정, 남한솔, 이승엽, 이세연, 전민서,
 신민철, 김 민, 전성준, 박준규, 심장호
 커리큘럼 | 악기소리내보기, 따치기, 궁치기, 덩치기, 민장 만들기, 일채, 이채, 인사굿

비가 갠 운동장에서...

아침부터 내리던 봄비가 풍물 수업시간을 앞두고 언
 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야외에서 진행해야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비
 에
 흥건히 젖어 있을 줄 알았던 은행초등학교
 운동장은 빗물의 흔적도 없이 고슬고슬하게
 말라있다.
 오륙학년 아이들은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아 늦는다
 는데 이미 악기를 하나씩 피어 차고 운동장
 바닥에 앉은 아이들은 이미 십여 명이 훌쩍 넘는다.

“선생님 이름은 김순중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할 때 순중이에요!”



선생님의 자기소개가 이어지고 출석을 다 부르고 나자,
 운동장 바닥에 악기 커버를 깔고 앉아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은행초등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운동장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구령대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할 것을 권유하셨다.
 아이들은 자기 몸 만한 악기를 든 모습이 달팽이가 집을
 인양 무거워 보인다.

“야~ 너 달팽이 같대! ㅋㅋㅋㅋ!”
 “선생님 무거워요!”
 “앞으로 네가 쓸 악기야!
 이거 무거우면 앞으로 장구치기 힘들단다!
 밥 많이 먹고 힘을 키워야해!”

오늘은 악기와 친해지는 날

“오늘은 악기와 친해지는 날이에요!”
“각자 자기의 악기를 한 번 마음대로
쳐보세요!”

쿵쿵 따따따 둥둥 꺽꺽꺽꺽꺽
일순간 귀를 막아야 할 정도의 불협화음이
밀려왔다

“자 그만! 무슨 소리가 나요?”
“오묘한 소리요!”

너다섯 명은 이미 악기를 잡아본 적이 있는
듯 자세가 꽤 폼이 나온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젓가락 행진곡을 ‘땡쿵땡’ 일채장단에 맞춰
불러본다.

생각보다 어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선지 장단을
제대로 맞추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수업이 끝난 오륙학년 친구들까지 합류하고,
인원은 금세 17명이 되었다.

선생님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다.

일정상 일채장단, 이채장단, 인사굿 장단까지
배워야 하는데, 김순중 강사님은
잠시 깊은 숨을 몰아신다.



전학오기 전에 풍물을 해봤다는 5학년 준구는 선생님을 도와 어린 동생들을 봐주기도 하고 시범도 보이는 든든한 만형 노릇을 한다.

싫어요!!

두 번째 수업!

첫날 운동장 수업이 너무 산만해서 오늘은 4층 체력단련실로 자리를 옮겼다.
첫날 수업에 엄마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수업 내내 심통을 부리던 지원이가 보인다. 오늘은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혼자 장구를 두드리며 신난 모습이다.

“우리 명색이 풍물반인데 출석 부르면 우리 ‘네’ 말고 ‘얼썬’ 할까?”

“싫어요!”

“그래! 그럼 싫어요! 라고 대답하자.”

“승엽이!”

“싫어요!”

“지원이!”

“싫어요!”

개구쟁이들의 출석체크 시간이었다.

장난꾸러기 녀석들 벌써 복이 하나 찢어졌다.

“애들아 너희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들을 뭐라고 해?”

“또 할머니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통에 웃을 수도 없었다. 또할머니라니 아이들다운 표현이다.

“이 악기는 그 또할머니 또할머니 때부터 사용되던 아주 오래된 악기예요!

악기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 분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악기를 소중히 해요!”

“네~~!”

대답은 우렁차다.

03

은행주공에 어린이 밴드가 생겨나다.

일시 | 2008.5~10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강사 | 이현창 (자유학습 밴드)
 참여 | 남다현, 박진영, 김세린, 박소영, 류상훈, 신민정, 박소윤, 박태림, 남한솔, 박상빈
 은행주공 어린이 밴드가 부르는 노래 | 윤희의 희생, 버즈의 나에게는 떠나는 여행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

어린이밴드 첫 번째 수업.
 아이들, 어머니들 모두 들뜬 마음에 부녀회 사무실을 찾았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각자 맡고 싶은 악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은행주공을 처음 온 이현창 강사가 아파트 이동 저동을 해매다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긴 웨이브 머리에 민소매 티셔츠, 그리고 꼭맞는 청바지까지... 우리가 기대하던 록커의 모습이다.

밴드는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로 구성되는데 우선 아이들이 다룰 수 있는 악기나 하고 싶은 악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태림이가 커다란 베이스를 맡는다고 하자, 모두들 무거운 베이스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공연할 때 그림 앞에서 연주해야하나?
 다른 악기를 맡는 것이 어때?
 라고 권해도 태림이는 베이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강사는 뱅크 차에 가서 기타를 가지고 와서 음계를 맞춰보는 테스트를 했다. '학교종이 땡땡'을 장조(major), 단조(minor)로 나누어 연주해보았다. 아이들은 우리가 친숙하게 들어온 장조와 다소 어둡고 슬픈 단조를 금세 구분했다.
 그리고 악보를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코드에 대해 배웠다.

현충일에 스튜디오 창으로

악기연주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악기가 없다. 게다가 드럼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방음시설도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은행주공 부녀회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단 아이들과 강사의 연습실인 '스튜디오 창'으로 갔다.

벽면엔 유명 밴드들의 공연 사진이 붙여있고 드럼이며 키보드, 기타 등 악기가 갖추어져있어 신기했는지 아이들은 이것저것 만져보고 두들겨 보았다.

예전에 피아노를 배웠다는 한솔이가 키보드 앞에 서서 '고양이 춤'을 연주하자 한솔이의 연주 실력에 다들 놀란다.

피아노를 잘 치는 한솔, 다연 자매가 신디를 맡기로 하고 자매를 중심으로 두 팀을 만들기로 했다. 첫 모임부터 자신은 보컬을 하겠다던 소영이를 제외하고 보컬 지원자가 없어 한참을 서로 의견을 나누더니 결국 남자팀, 여자팀 두 팀이 만들어졌다.

이현창 선생님이 음계와 기타 코드를 설명하는 동안 기타를 맡은 아이들은 앞자리에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어디에서 성빈이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 나무를 엮어 놓은 것이 작은 베개 같기도 하고, 소리가 날까 궁금하기도 했나보다. 어린밴드 아이들에게 연습실의 악기들은 친해지고픈 친구가 아닐까...



<강사 소개> 이현창

은행주공 어린밴드를 지도하는 이현창 선생님은 사랑방문화클럽에 소속된 직장인밴드 '자율학습'에서 활동 중이다. 자율학습은 이현창 선생님 외에 송림중학교 교사 3명, 졸업생 1명으로 이루어진 교사밴드로 2004년에 창립하여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이것저것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이현창 선생님은 '스튜디오창'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학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배우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밴드 결성은 음악적 감수성 뿐만 아니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직접 악기를 다루고 배우면서 아이들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나의 음악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갈 것이다.



04

종이를 접고 자르기만 해도 책이 된다

일시 | 2008.5~10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강사 | 박영실

참여 | 문선정, 최미경, 이경진, 이영란, 강정희, 조선영

문화배움터에서 만든 책 | 파일북, 코덱스북, 터널북, 미니 앨범, 동양식 바인딩, 플래그북, 롱북, 앨범, 미니북



책은 어떻게 만드나...

북아트 수업에 참여한 주부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엄마들이다.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젊은 주부답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자녀를 위한 책만들기를 상상하고 오신 분이 많았다.



북아트 강사 박영실

“book art는 artist's book 이라는 의미입니다. 작가가 만든 책이죠. 예술을 표현하는 도구가 책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부터 프로듀서가 돼서 결과물이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북아트는 글, 그림, 조형물들이 표현될 수 있는 복합 예술이지요.

처음 북아트를 한 사람은 고갱이에요. 고갱이 타히티에서 자신의 그림과 일기를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고대에는 소수만이 책을 소유했어요. 그때는 출판과 인쇄가 발달하지 않아서 다 손으로 만들어서 귀했지요. 귀족만이 소유한 것이기에 금도 붙이고 비싼 종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야차산 부근에 있는 개인 작업실에서 북아트와 가족조형 작업을 하고 있는 박영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북아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다. 박영실 선생님은 2007년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태평4동 한울뉴스 편집에 참여했는데 올해엔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의 북아트 강사로 활약, 2년 연속 마을만들기 사업과 인연을 맺고 있다. 주부들이 좋아할만한 책,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책,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책 등 어쩔 그리도 다양하게 준비해오는지 매 수업시간마다 이번엔 무엇을 만들지 설레게 한다.

첫 시간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드는 몸풀기 시간. 종이를 자르고 접기만 해도 책이 된다는 사실. 종이를 반 접어 가위집을 내서 입체감있는 책을 완성했다.

예쁜 지갑같지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부녀회 사무실로 들어서는 박영실 선생님.
가방 안에는 색색의 예쁜 종이와 가위, 칼, 풀, 송곳 등의 도구, 그 외 재료가 가득하다.

“지갑같이 생기기도 하고 앨범 같기도 한 이것은 뭐예요?”
“오늘 만들 것은 파일북입니다.”

앞표지도 있고, 예쁜 단추에 색깔 끈, 지그재그 아코디언 모양의 옆면, 내 이름이 쓰여진 태그까지 달고 보니 실용 만점, 개성 만점의 예쁜 파일북이 완성되었다.
파일북은 수납을 위한 지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넣은 여러 장의 종이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달라진다. 가령 곤충의 종류나 특징을 각 장에 적어놓으면 멋진 곤충사전 파일북이 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엄마들의 파일북 활용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물론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엄마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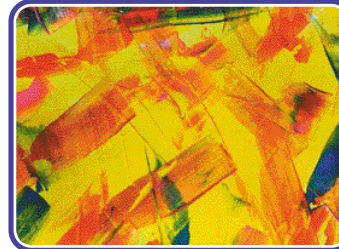
아이가 셋이라는 이정진씨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스탬프로 찍었다.
“이번에는 둘째 아이 꺼 만드는 거예요.”
부지런도 하시지 어느새 조용히 둘째 아이 파일북을 만들고 있었다.



오공본드에 물감을 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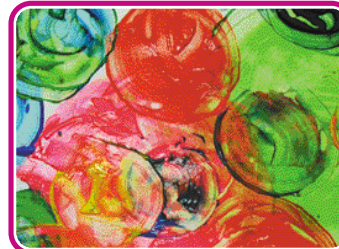


이번엔 신나는 미술시간.
오공본드에 물을 7:3 비율로 섞고 수채화 물감을 풀었더니 예쁜 색의 본드 물감이 되었다.
이 물감을 하얀 종이 위에 쏟아놓고 얇은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이용해 마블링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표지가 완성되는 것이다.
물결모양, 하트 모양, 해님 달님 모양.. 어느새 주부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졌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쁠지 고민해서 만든 북아트는 더욱 빛이 난다.



“아이들과 함께하려면 본드는 몸에 해로우니까 천연풀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 물감 수채화예요? 아크릴이에요?”
집에서 아이들과 다시 한 번 해볼 양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물어본다.
남은 물감이 담긴 종이컵은 주부들 손에 하나씩 들려 주부들의 집으로 향한다.
과연 아이들과 어떤 문양을 만들어냈을까?



[마블링으로 만든 플래그북의 표지]



한지 붙이기는 너무 긴장돼

시간을 잘못 알고 늦게 온 김정자씨는 한지를 붙이시다가 “망쳤다”라고 한다. 옆에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놀던 손자 태인이가 “괜찮아”하며 할머니를 위로해준다. 옆에서 한창 한지를 붙이고 있던 주부들은 손자 태인의 말에 웃음이 터진다.

화요일 오전 10시. 아이들의 등교와 남편의 출근으로 가장 분주한 하루를 여는 주부들은 아침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문화배움터에서 자신만의 여유와 평화를 맞는다. 차 한잔을 나누며 아파트 이야기, 드라이기로 풀을 말리며 자녀 교육, 입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은행주공 아파트에 15년을 살았다고 하는 김정자씨는 이런 배움터를 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며 이사 온지 3개월 된 새 이웃 김선미씨에게 행운이라고 하였다. 주부들은 벌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문화배움터를 모두 알고 있으며 “내일은 사진반 들을 거야.” “작년에 생태체험에 참여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며 문화배움터 강좌에 신이 났다.

한지 공예

05

한지의 멋스러움을 내손으로 빚어내다.

한지공예는 나무로 된 기본 틀에 색색의 한지를 붙이고 니스를 칠하고 다양한 문양의 한지를 붙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손수 만드는 예술 활동이다. 한지와 그 문양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움이 만드는 이와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하나하나 한지로 붙이고 니스를 칠하는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정성의 미가 들어가 아름다움을 더하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실용성도 겸비했다.

일시 | 2008. 5~10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강사 | 용미자

참여 | 김정자, 김선미, 이혜경, 이상덕, 강정은, 윤미령, 김남희, 이선희, 김미숙, 전용애, 고은주, 김미숙

문화배움터에서 만든 한지공예품 | 정반, 호박함, 필통, 휴지막,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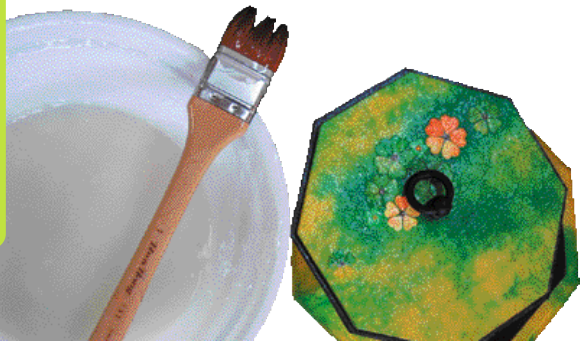
내가 직접 만든 쟁반에 과일을 가득 담아 나눠 먹는 재미에 푸욱~

하얀 이불에 수놓은 꽃처럼 양증맞은 꽃이 가득한 액자인가?

첫 수업에 용미자 선생님이 준비해온 재료의 용도가 궁금해졌다.

나무판에 한지를 붙이고 어여쁜 꽃잎과 다양한 초록 잎사귀를 붙이고 반짝반짝 니스 칠을 하니 주부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쟁반이 되었다.

쟁반, 호박함, 필통, 휴지 케이스 등 작은 소품부터 시작하는 한지공예 수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조그마한 소품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매 수업이 끝나면 주부들은 풀칠하고 한지 붙이느라 수그리고 있던 허리를 쭉욱 펴고 흐뭇한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것 같다.



문양 파기는 힘들어~

드디어 강사가 주부들에게 조각칼을 나누어 주었다. 작은 소품을 만들 땐 강사가 미리 파온 문양을 붙이곤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부들이 직접 문양을 조각칼로 파야한다. 일주일동안 각자 원하는 문양을 파오는 것이 과제로 주어지는데 주부들 대부분은 날카롭지만 예민한 칼로 한지문양을 파는 것을 힘들어했다.

일주일 내낸 난초 모양을 파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릴 뻔했다고 하소연하는 김미숙씨도, 도저히 하다가 못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김정자씨도 문양 파는 것은 어렵다며 한지공예의 고충을 풀어 놓는다. 매주 수업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주부들은 강사에게 문양 판 것을 확인받느라 바쁘다. 다들 잘 한 것 같은데 아직 주부들은 강사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사 소개〉 용미자

한지공예 용미자 선생님은 은행주공 101동에 산다. 신혼집으로 시작해 아이들이 훌쩍 자란 지금까지도 은행주공에서 사는 은행주공 토박이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수업 도중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다닥 집에 갔다오곤 한다. 한지공예를 하는 강사의 집은 어떨까? 역시나 한지로 만든 장롱에서부터 선바상, 밥상, 약장, 스탠드, 필통, 거울까지 없는 게 없다. 현재 하대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종이접기를, 이태중학교 학생들과 서울 천호동 부녀회 어머니들에게 한지공예를 가르치고 있다.

느린 걸음으로 여유로움을 만들어내다

일시 | 2008 5~10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강사 | 조애경 (분당퀼트)

참여 | 유근숙, 강현희, 홍경희, 윤현선, 박은진, 김순희, 이선희, 박미란, 이주은, 조재일, 손미애, 김미자, 박상진, 서경숙, 한미경

문화배움터에서 만든 퀼트품 | 핀쿠션, 쿠션, 가방, 파우치, 필통, 동전 지갑, 반지갑, 거울, 벽걸이 등

문득 영화 '아메리칸 퀼트(How To Make An American Quilt)'가 떠오른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교외의 할머니 집을 방문하는데, 이곳은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으로 함께 지내온 여성들의 퀼트 모임 장소이기도 하다. 퀼트모임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온 사랑과 꿈, 행복과 고통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운다.

행복을 부르는 바느질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에서도 조각천 하나 하나를 이어 퀼트 작품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그녀들의 수다, 사랑, 가족, 그리고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라는 조각 퍼즐 맞추기가 시작된다.



자투리를 꿰매어 만드는 기쁨

퀼트는 조각 작업(Patchwork)과 누빔 작업(Quilting)이 복합된 용어이다. 그래서 어떤 천의 조각을 어떤 바느질로 누비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작품이 완성된다.

첫 수업은 퀼트 작업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핀쿠션 만들기.

우선 두 가지 패턴의 천을 파이 모양으로 총 6장을 이어 원형을 만든다.

같은 모양으로 4세트를 준비한 후 서로 이어붙이고 솜을 넣으면 각 칸에 실패를 걸고, 핀을 꽂아놓는 핀쿠션이 완성된다.

예전에 퀼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주부들은 핀쿠션 대신 벽걸이 장식품을 만들기로 했다. 김순희씨는 벽걸이를 만든다고 천을 이리저리 자르다가,

“나 핀쿠션 만들래! 황새 따라가다 뱀새 가랑이 찢어져”라고 하며 다시 시작한다.

잘못하면 밤새 풀어야 합니다!

배움터에서 퀼트 강사를 맡아주신 분은 사랑방문화클럽 소속의 분당퀼트 회원 조애경 선생님이다.

차분히 앉아 회원들과 함께 바느질하는 조애경 선생님은 사실 한 달에 30권이 넘는 책들을 보는 열정적인 논술 강사이다.

취미로 시작한 퀼트는 어느새 동호회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배움터에 와서 주부들도 가르치는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필통, 파우치, 가방까지 모두 다 예쁘지만 조애경 강사가 만든 것 중 가장 예쁜 건 아이들을 위해 만든 필통과 가방인 것 같다.

퀼트 강사, 논술 강사이기 전에 그녀도 '엄마' 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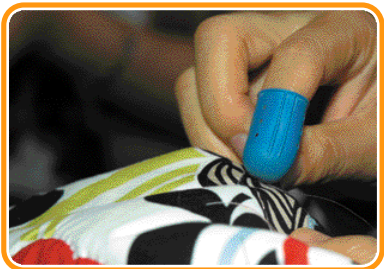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시접자를 이용해 재단하고 천을 오려 핀으로 잘 고정한 후 바느질을 해도 이것저것 생각하며 바느질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거나 선에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럴 때 강사의 단호한 한마디 “풀고 다시 하세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능숙하지 못한 것, 누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새삼 문화배움터가 일깨워준다.

처음 퀼트를 시작할 때 만들었던 12년 된 핀쿠션이 강사의 곁에 항상 자리하듯, 은행주공 주부들의 곁에도 오늘 만든 핀쿠션이 함께 하겠지.

그녀들 곁에서 그녀들의 수다를 들으며 오랜 친구가 될 핀쿠션을 상상해본다.



울지 않게 달래가면서 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주부들의 손이 바쁘다.

보통 퀼트 수업은 재단, 조각천을 잇는 바느질, 바느질로 모양을 내는 퀼팅까지 3차 시에 걸쳐 진행된다. 수업 시간 이외에도 집에서 짬짬이 바느질을 하지 않으면 완성하기 어렵다.

“손이 머리보다 빨라요. 금방 익히실 거예요”

주부들은 처음 바느질을 배우는 소녀들처럼 바늘에 실을 넣고 매듭 짓는 법, 홈질, 박음질, 패치, 공그르기, 바이어스 같은 바느질 방법을 배운다.

사각사각 천을 자르는 소리와 느낌이 좋다는 조애경 선생님은 어느새 주부들에게 그 재미를 알려주고 있었다.

“귀여운 곰돌이 무늬랑 꽃무늬 천이랑 바꾸자~”

작은 핀쿠션 만드는데도 주부들은 서로 어울리는 천으로 배색을 하고 이것저것 바꿔가며 조합한다. 아기를 데리고 온 박상진씨는 아기를 등에 업고 퀼트를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반장 박은진씨도 아이들에게 예쁜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줄 생각에 마음이 바쁘기만 하다.

세상에 얹고 예쁜 가방, 지갑, 이불이 널려있는데 퀼트를 왜하지?

몇 주간 바느질 한 거, 재봉틀로 박으면 금방인데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빠른 것에 익숙한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들것이다.

퀼트를 하는 주부들은 말한다. 기성품과 재봉틀의 박음질이 줄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이라고.

그녀들의 '느림' 에는 가치가 있다.



상상력과 추억을 담는 빛의 기록자

일 시 | 2008. 5~10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참여자 | 김순희, 최미경, 고은주, 이상덕, 송정란, 김정자, 김미숙, 이화자, 이정은, 이선희
 강 사 | 곽대현 (성남미디어공동체 불꽃)
 커리큘럼 | 오리엔테이션 및 참가자 소개, 내 디카의 구조에 대해 알지, 나는 무슨 색일까? 우리가족 광고



사진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기도 한 그것
 차가운 기계로 만들어진 과학의 산물이 예술로 바뀌는 순간은
 그 속에 예술이 주는 상상력만큼이나 귀한 우리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봄비 소리와 함께하는 첫 수업

며칠째 민소매가 어색하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변덕스러운 봄이 아직 왕성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촉촉한 빗방울로 지상의 온기를 잠재운다.
 비 내리는 봄날의 아침! 부녀회 사무실에는 사진 강좌를 배우러 온 주부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느새 책상대신 깔아놓은 세 개의 커다란 잔칫상에 10명의 수강생들이 둘러앉았다.

“선생님~ 개근하면 상장도 주나요?” 첫날부터 열의가 대단하다.

“제 소개를 할게요! 이름은 곽대현이고 대학을 막 졸업했고 스물여섯이에요! 편하게 쌤 또는 쌤으로 불러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 쌤!”

아이를 한둘 씩 둔 주부들이지만 어린 아이들 마냥 크게 불러본다.
 막내동생뻘 되는 젊은 강사를 학생들의 표현인 ‘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주부들의 눈에는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묻어난다.
 첫 수업을 자축하기 위해 쌤이 준비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모두 함께 촛불을 끄면서 은행주공 사진반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아파트라는 단절된 주거문화 속에서 이웃이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기소개가 시작됐다.

“나이는 오학년 팔반이고, 111동에 살아요!”
 “우리 아이들 참 예쁜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 실물처럼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부녀회 총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참가해주세요!”
 “우리 딸이 성남실록문화제에서 모델을 했답니다!”

이들에게 사진강좌는 단순히 사진을 배우러 오는 곳 뿐 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소통의 창구, 이야기가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타임캡슐

짧지 않은 자기소개에 이어 강사가 준비한 타임캡슐 사진 강좌가 끝난 20주 뒤에 풀어볼 예정으로 자신이 그리는 20주 뒤의 나의 모습이나 각오 등을 적어 유리병 속에 담아 두기로 했다.

“어머 세심하기도 하셔라!”

“역시 젊은 사람이라 다르구먼!”

“여자친구가 준비해 준거 아니에요?”

강사의 깜찍하고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인 듯

다들 열심히 자신의 각오와 기대를 담아 타임캡슐에 담았다.

꼭샘이 첫날 준비한 관계 맺기 수업은 ‘참과 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3~5개의 자신에 대한 소개 중에 진실과 거짓을 배치하여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 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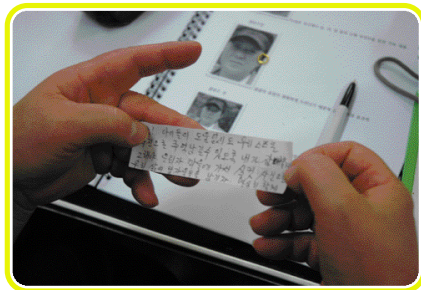
서로에 대해 더 관찰하고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

왕언니 김정자씨는 58세의 나이에 컴퓨터 인터넷을 잘 다루고, 부녀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화자씨는 한자공예가 수준급이며, 꿈은 보험왕이 되어 역대 연봉자가 되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 이어 사진수업에 참여한 김순희씨는 인터넷쇼핑의 달인이며 최근에 DSLR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가격비교를 하도 꼼꼼히 해서

이제는 걸어 다니는 에누리닷컴이라는 사실과

송정란씨가 감자탕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체사진

앞으로 매 차시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단체사진을 함께 찍으며 수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렇게 차곡차곡 찍힌 20개의 사진이 완성되면 누가 어느 날 결석을 했는지, 이날은 날씨가 어땠는지 나의 표정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캡슐이다.

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끝맺음이었다.



2008.5.21



2008.5.29



2008.6.4



2008.6.11



2008.6.18



2008.6.25



2008.7.2



2008.7.16



2008.7.23



2008.7.30



2008.8.6



2008.8.13



2008.8.20



2008.8.27



2008.9.3



200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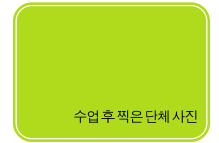
2008.9.17



2008.9.24



2008.10.1



수업 후 찍은 단체 사진

벼룩시장

08

음악이 뛰노는 벼룩시장

플장 오픈! 은행주공,
사랑방문화클럽과 소통하다.



5월 31일 플장환상

햇볕이 내리쬐는 플장에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플장은 주민들의 클럽의 장(場)으로 쓰이던 곳이다. 겨우내 잠이 들었던
 플장을 아이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깨우고 있다.
 다시 플장에서 환상을 꿈꾸는 날이 온 것이다.
 오늘의 벼룩시장은 음악이 뛰노는 벼룩시장!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준비한 음악회가
 벼룩시장이 끝난 후 이어질 예정이어서 리허설이 한창이다.

무대 옆에 옹기종이 돗자리를 깔고 자리 잡은 아이들은 하나 둘 자신들의 물건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만든 한지공예품들, 내가 읽던 책들, 이제는 작아서 입
 지 못하는 옷가지들까지 없는 게 없다.
 몇몇 아이들은 이미 작년에 벼룩시장에 참여해서 그런지 능수능란하다.
 팔기위해 소리치는 아이들은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 같다.

벼룩시장 너무 재밌어요

유독 햇빛이 내리쬐던 날이지만 더위도 있고
 아이들은 물건을 팔고 엄마들이 만들어주는
 떡볶이를 먹느라 바쁘다.
 작년에 했던 벼룩시장에서도
 물건을 팔았냐고
 물으니 물랐다고 한다.
 “(윤지우) 내년엔 하면 또 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어디에서 났는지 신기한 것도 많았고
 정말 팔아도 되는지 하는 물건들도 있었다.
 멋진 자동차 장난감이 있길래
 얼마냐고 묻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건 안 팔아~”



엄마, 물! 엄마, 아이스크림...

선형이와 선우는 가장 더운 자리에서도 엄마 옷, 엄마 목걸이, 중국에서 입던 옷과 신발 등 아끼자기한 예쁜 옷과 액세서리 등을 파느라 바쁘다.

우산을 가져다가 펴 봤지만 너무나 더워서 아이들은 금세 지쳐버린 모양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물, 과자, 부녀회 아주머니들이 파는 떡볶이까지...

“이러다 돈 남겠어요?”

“(아이들) 몰라요, 더워요”

어느새 은행주공에 낯익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제 겨우 2~3차례 문화배움터에 얼굴을 내밀었을 뿐인데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띈다.

어린이풍물 첫 시간에 심통 난 얼굴로 앉아 장구채를 꼭 쥐 채 풍물하기 싫다고 시위를 벌이던 지원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 이제는 풍물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지원이는 기분이 좋은지 간식으로 준비한 빵까지 건네는 후한 인심을 보인다.

파란 우산을 쓰고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어쩔 줄 몰라하던 1학년 미연이는 예쁜 옷과 인형이 하나 둘 팔려나가자 이제는 제 집인 양 편안한 얼굴이다. 돈 귀한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미연이 어머니 박은진씨는 쿨트반 반장이다. 풀장 가까이 있는 집을 오고가며 빠진 물건을 채우는 것은 엄마 박은진씨의 몫이다. 어린이풍물반의 민정이는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만화책을 시리즈로 가지고 나와 단숨에 팔고 이제는 다른 장터를 기웃거린다.

북아트 반장인 이앵란씨는 잘생긴 승구, 용구 형제와 남편까지 온 가족이 동행했다.

어느덧 아이들이 팔려고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하나 둘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은행주공, 사랑방문화클럽과 소통하다.

하얀 천 한가운데 빨간 원이 인상적인 사랑방문화클럽의 무대막. 오늘은 10개 클럽으로 구성된 무빙사운드 팀에서 통기타, 만돌린, 색소폰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은행주공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즐기고 소통하는 날이다. 분당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미멜만돌린앙상블의 청아한 만돌린 소리가 풀장을 넘어 주변 아파트와 숲 속으로 퍼져나가고, 보네르 플룻오케스트라는 준비해온 클래식 연주곡이 끝나자 아이들을 위해 올챙이송을 연주하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풀잎소리의 색소폰 공연은 무대인에서의 열정적인 공연 뿐만 아니라 객석의 주민들과 열광적인 호흡을 한다. 오늘의 베틀시장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은행주공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이룬 은행나무의 한 줄기로 뻗어나갈 것이다.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의 도시 성남을 만들고자 2006년 성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클럽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1,103개의 문화예술클럽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성남시민의 문화예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사랑방문화클럽이다.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의 주요 목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우고 표현하는 아rium으로 일깨우고 나이가 좀 더 높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한아rium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 12월, 30여개 클럽들이 모인 클럽파티를 시작으로 2007년 5월 참가 클럽들의 워크숍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클럽지원공모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클럽들의 다양한활동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67개 클럽이 참여한 7개 팀을 구성하여 복지시설, 병원, 동네, 공원 등 성남 곳곳을 찾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헌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5월 은행주공 아파트 풀장에서 진행된 어린이버룩시장 후 만돌린, 플룻, 색소폰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했던 것이나, 10월 마을잔치때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전통혼례, 밴드공연 등도 문화공헌프로젝트의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은행주공 문화배움터의 어린이 풍물, 어린이 밴드, 켈트, 사진 등 대부분 강좌에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주었다.

2009년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은 130여개 클럽이 가입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매년 9월 성남지역 문화예술클럽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진행하는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클럽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clubsb.or.kr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무빙사운드팀 참여클럽〉

새암터, 미텔만돌린앙상블, 보네르 플룻오케스트라, 풀림소리, 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 성남목관앙상블, 분당여성합창단, 성남분당시진시랑, 분당윈드오케스트라, 분당맑은노래친구들



은행주공 풀들의 이야기

생태활동가 김현주_은행주공 생태체험 가나



잡초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가다 흔히 밭길에 차이는 풀들을 보고 우리는 잡초라고 하지요. 또 농사짓는 논, 밭이나 과수원에서 농부들을 귀찮게 하는 풀들도 잡초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부여받지요. 잡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쓸모도 없고 웬지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요.

그러나 잡초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잡초는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남모르게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름이 있듯 잡초들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선밭대.

잡초는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이면 어디든 제일먼저 찾아가 뿌리를 내려요. 다른 식물들은 싹틔울 엄두도 못 낼 만큼 망가지고 척박한 곳에서 제일먼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지요. 일단 잡초가 뿌리를 내리면 맨땅일 때보다 빗물에 흙이 떠내러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지요.

푸른 풀밭과 파헤쳐진 공사장에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될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풀이 뿌리를 내리면 다른 생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잡초를 먹으려는 벌레들이 먼저 찾아오고, 그 벌레들을 잡아먹으려는 다른 동물들도 달려오게 되겠지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 외에 땅속에서도 잡초는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남들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서 자리를 잡으려니 생존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선밭대이기도 합니다.

은행주공에 살고있는 풀들의 이야기

조셉 코케이너는 대지의 수호자 잡초라는 책에서 잡초를 잘 관리하여 잡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 훨씬 양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잡초의 생태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방법은 일본에서는 30여년 전부터 연구해왔으며 우리나라도 시험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요. 은행주공에는 화단에 심어 놓은 풀꽃들도 많지만 자연적으로 돌아나는 풀들도 많답니다.

여기서는 생태탐사를 하면서 살펴보았던 풀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때 돌아난 풀 **망초**

조선이 일본과 강제합방조약을 맺은 경술국치이후, 여기저기에서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볼품없는 낫선 풀이 많이 돌아났대요, 이를 본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돌아난 풀이라 하여 망국초(亡國草)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줄어 망초이름의 유래가 되었어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싹이 트고 꽃피워 열매를 맺은 다음 로제트를 형성하여 땅바닥에 붙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부터 싹싹 자라서 온통 빈 땅을 뒤덮는 풀이예요, 그러나 망초는 한자리에서 오래 자라지 못하는데, 이것은 망초의 싹은 뿌리에서 생겨나는 독성물질이 망초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는데 이런 작용을 타감작용이라고 해요.

농부를 힘들게 하는 계란꽃 **개망초**

활짝 핀 꽃모습이 작은 계란프라이를 닮았다하여 이름도 모르던 어린시절 계란꽃이라고도 불렀던 꽃이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살던 풀이 아니라 개항기 무렵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귀화식물인데 망초와 비슷하여서 '개지'를 하나 더 붙여 개망초라고 하였대요, 하얀 꽃잎은 씨앗을 맺지는 못하며,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꽃잎 모양이 보통 혀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혀꽃' 또는 '설상화'라고 하지요, 개망초의 진짜 꽃은 가운데 노란 부분인데 작은 통모양의 노란 꽃들이 뼈곡이 박혀 있는 통꽃 즉 '통상화'예요, 개망초 한·두 그루에서 수십~수백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기에 열매 또한 그만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망초나 개망초는 **끈질긴 생명력과 수많은 씨앗으로 인해 농부들이 밭으로 들어온 망초나 개망초를 캐내도 캐내도 다시 자라기 농부를 힘들게 하는 풀이라서, 망할 농의 풀(망초)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지혜로운 풀 **괭이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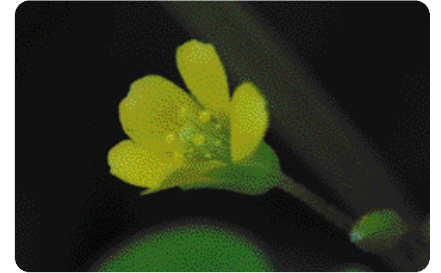
괭이밥은 아주 예쁘고 정확한 하트모양의 잎이 세 개가 붙어요, 괭이라는 말은 고양이의 사투리이니 괭이밥이라는 말은 분명 고양이 밥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식물을 먹는다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고양이는 소화가 잘 안되거나 아플 때 괭이밥을 뜯어 먹어 몸을 낮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괭이밥은 목이 마를 때 하나씩 뜯어 먹어보면 강한 신맛 때문에 입에 침이 고여 잠시 목마름을 달래주어요, 이 신맛은 수산성분 때문인데 원래는 입을 뜯어먹는 벌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물질이예요.

또 괭이밥은 해가 지거나 날이 흐릴 때는 입을 오므려 접는 수면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밤에 잎으로부터 열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에요, 괭이밥은 잎만이 아니라 꽃도 단는데 햇살이 비추지 않을 때는 꽃가루받이를 도와줄 벌레가 찾아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꽃을 단고 꽃가루의 분실을 막는다고 하니 참으로 지혜로운 풀이지요?

털이 많은 별꽃 비슷한 식물 **털별꽃아재비**

아재비는 아저씨라는 말의 사투리지요, 식물의 이름에서 뒤에 '아재비'를 붙인 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식물임을 나타내요, 미나리와 다른 미나리아재비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털별꽃아재비는 풀해보면 털이 많은 별꽃 비슷한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꽃이 아주 작지만 자세히 보면 국화를 닮은 국화와 식물이에요, 하얀 꽃잎은 군데군데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잎사귀는 깃잎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이랍니다.





비단염색을 하였던 꽃 **닭의장풀**

여름이면 길가나 숲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는 풀인데 닭장 옆에서도 잘 자란다하여 닭의장풀이라고 해요. **닭장 옆은 독한 닭똥이 많아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그 옆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한 풀이지요.**

닭의장풀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닮았나요? 옛날 사람들은 닭벼슬을 닮았다고 하고 요즘 어린이들은 미키마우스를 닮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하늘하늘하고 파란 꽃잎으로 비단염색을 하였대요. 닭의장풀 꽃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면 파란꽃잎 두 장 말고, 암술과 수술아래 작고 하얀 꽃잎이 한 장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술은 모두 노랑색인데 꽃잎처럼 보이는 X자 모양의 수술3개와 가운데 Y자 모양의 수술 1개 그리고 맨 아래 O자 모양의 수술2개로 나뉘어 있어요. X자 모양의 수술은 꽃 밥이 거의 없는 헛수술로 파란 꽃잎 위에서 곤충을 유혹하는 역할을 해요. 꽃등에 같은 곤충이 왔을 때 먼저 큰 X자 수술에서 꽃가루를 먹으려고 앉으면 가운데 Y자형 수술에서 꽃등에의 배에 꽃가루를 묻혀요. X자 수술에 꽃가루가 거의 없음을 알고 Y자 수술의 꽃가루를 먹으려 할 때 O자 수술에서 꽃가루를 묻히는 보완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조그맣고 어려 보이는 닭의장풀의 머리가 참 좋지요?



개미굴에서 싹이나는 **애기똥풀**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노란 유액이 나오는데 마치 엄마젓을 먹는 갓난아기의 똥과 비슷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어요. 이 노란 유액은 독성이 강하지만 살균작용을 하기도 해요.

고투리처럼 생긴 씨앗주머니 속에 작은 씨앗이 빼곡히 들어있는데, 자세히 보면 까만 씨앗 옆에 하얀 밥풀데기 뭉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엘리오솜이라고 하는 지방체가 붙어있어요. 씨앗이 머물러 터져 흘러지면 개미들이 씨앗을 물고 집으로 가서는 애벌레와 다른 개미들의 식량으로 먹고 남는 찌꺼기인 씨앗을 개미굴의 쓰레기장에 버려요. 이듬해 봄 개미굴에 버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오게 되지요.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에 가장 먼저 들어서는 **민들레**

민들레를 모른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가 모두 서양민들레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는 간단하게 구별이 가능해요. **꽃 아래에 있는 꽃받침이 꽃을 위로 감싸고 있으면 토종민들레이고, 꽃받침이 아래쪽으로 두집어져 있는 것은 모두 서양민들레예요.** 또 토종민들레는 봄에 한번만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서양민들레는 겨울을 제외하고 일년 내내 꽃피우고 씨앗을 맺을 수 있어요. 서양민들레는 조건이 좋지 않을 땐 자가수분을 하면서 씨앗을 남기기 때문에 토종민들레보다 씨앗을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답니다. 서양민들레는 다른 식물과 경쟁하면 이기기 어려우므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식물들이 잘 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살아요. 이를테면 개발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이 파괴된 곳에 먼저 들어가지요.





북아메리카에서 왔어요_ 서양등골나물

이름이 특이하지요? 우리나라에는 등골나물, 골등골나물, 벌등골나물이 있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하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풀이에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귀화식물로 입사귀가 깎임처럼 생겼지요. 귀화식물은 대개 햇빛을 좋아하는 양지 식물이라서 숲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서양등골나물은 나뭇잎사이로 떨어지는 적은 햇빛으로도 살 수 있는 풀이에요. 어느 날 은행주공의 풀밭에 한 두 송이 피어나더니 몇 년 새 은행주공의 빈 땅들을 뒤덮을 듯 기승을 부리다가 차츰 줄어들고 있어요.



위장을 튼튼하게 해줘요_ 환삼덩굴

삼베나 대마초를 만드는 원료이고 대마라고도 부르는 삼의 잎을 닮기 때문에 환삼덩굴이라고 하였는데, 삼을 모른다면 손가락이 넓어진 단풍나무 잎을 생각하면 되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굴성 풀인데 자세히 보면 줄기는 네모지게 생겼어요. 또 줄기에 아래로 향한 가시가 잔뜩 돌아나 있어 만질 때 주의하지 않으면 긁힐 수 있습니다. 입사귀 뒷면에도 가시 같은 털이 잔뜩 돌아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어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데 수꽃이 한창일 때 흔들어 보면 꽃가루가 뽀얗게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번식력이 좋아 농부들에게는 귀찮은 풀이지만 민간요법에서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침을 멎게 해주며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약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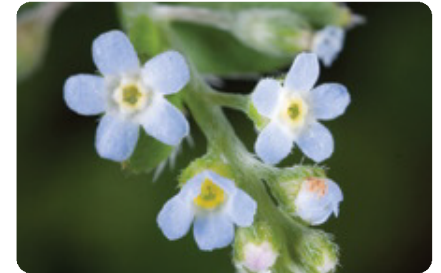
며느리를 골탕먹이는_ 며느리말씻개

이파리가 삼각형인데 줄기와 잎 뒤의 주맥에 아래로 향한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잡아 뜯으려고 하다간 손을 긁히기 십상이지요. 조심스럽게 잎을 하나 따서 씹어보면 새콤한 맛이 나면서 입에 금방 침이 고여요. 안 먹으려고 하던 어린이들도 한번 맛을 보고나면 자꾸자꾸 달라고 해요. 며느리말씻개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데는 전해져 내려온 유래가 있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이 풀로 밀을 닦게 했다고 해요.** 종이가 귀한 옛날에는 자푸라기나 나뭇잎, 풀잎 등으로 밀을 닦았는데 함상국은 가시투성이 풀로 밀을 닦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옛날 며느리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여러날의 걸쳐 꽃을 피우는 생존전략_ 꽃마리

그냥 보면 아주 작아서 꽃이 있는지도 모르고 밟고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꽃마리의 꽃을 확대경으로 보아주면 너무나 예쁜 모습에 모두 감탄을 한답니다. 꽃이 필 때 꽃대가 또르르 말려 있다가 아래서부터 점차로 퍼지면서 차례대로 꽃이 피어요. 즉 **꽃대가 말려 있다고 해서 꽃말이 꽃마리가 되었지요.** 풀꽃들은 한번 피고지면 생명을 다하는데 한꺼번에 꽃을 다 피웠다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더라도 하면 곤충들이 못 찾아와 낭패를 보겠지요.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 차례로 꽃을 피우면서 꽃가루받이의 확률을 높인답니다. 조그만 풀꽃들의 생존전략이 대단하지요?



여름 가지뻗기

양상하던 가지에 어색한 듯 조심스레 돌아나던 새싹이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장대비조차 성장의 기름삼아 푸른 잎을 키우며 가지를 뻗는다.
문화배움터에서의 낯설었던 만남은 어느새 친근한 벗이 되고,
어색했던 손놀림이 익숙한 삶이 되어간다.



01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함께 읽은 책 |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사노 요코), 작은 집 이야기 (버지니아 리 버튼)
마법에 걸린 병 (고경숙), 100만번 산 고양이 (사노 요코)등

톡톡 튀는 상상력이 경쟁력이자 힘인 시대가 왔다.
톡톡 튀는 상상력은 어디에서 올까?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함 속에서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읽은 동화책의 여백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엄마와 함께하고, 언니와 오빠, 동생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

‘나만의 책 만들기’ 시간은
톡톡 튀는 상상력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시간이다.



유정이가 책 만드는 날이라고 꼭 가야한대요!

“너무 더워서 애들 데리고 오시기 힘들었죠?”

오늘도 위승이는 엮고, 유정이, 유민이의 손을 양쪽에 잡고 부녀회 사무실을 들어서서 최미경씨에게 말을 건네본다.

“유정이가 책 만드는 날이라고 꼭 가야한대요!”

세 남매를 모두 진사하며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엄마는, 힘들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이 시간을 빠질 수가 없다.

책만들기 수업에 참여하는 어머니들답게 부녀회 사무실에 일찍 도착한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

“엄마, 낙엽이 모아?”

“떨어질 낙, 잎 엮 해서, 가을에 잎사귀 들이 바닥에 떨어지지?”

그런 이파리들을 낙엽이라고 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감자

오늘의 동화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감자>.
어마어마하게 큰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 줄줄이 힘을 보태는 인물들을 잡지 속에
마음에 드는 대상을 잘라 연결해서 동화책을 완성한다.

“흠 한지 다 붙였어요! 빨리 감자 주세요!”
오늘따라 저돌적인 웅렬이는 감지를 만들 색종이를 빨리 달라며 토마토
선생님을 재촉한다.

통통한 감자 만들까? 날씬한 감자 만들까? 유정이와 엄마는 다정히 상의하며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들어 가고, 아직 가위질이 서투른 동생 유민이는 잡지 속의
강아지를 오리다가 실수로 강아지 코 부분을 잘라내곤 “엄마! 코 찢려!”하며
속상해 하는데, 막내 위승이는 더운지 옷까지 벗어두고는 두 누나들이 오리고,
붙여 만든 동화책을 뜯어내서 재창조 한다.

좌충우돌 하지만 결국은 완성된 DIY책들!
유진이는 잡지 속에서 이쁜 여자 연예인들을 오려 붙였고, 신경이는 미키마우스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델, 지은이는 마시마로, 딸기, 뿌까등의 캐릭터를, 유정이는
박지성을, 승구, 영구 형제는 동물들을, 형기는 코미디언을 오려붙인 책들이
탄생했다.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나만의 책!
아이들의 상상력이 책에서 푹 튀어 오른다.



<강사 인터뷰> **최정희** 남한산초등학교 사서교사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노오란 마을버스, 숨이 차는 경사진 길,
그 높은 둔덕에 솟아오른 아파트 건물.. 딱히 좋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이웃을 돌아볼 여유 없이 팍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을사람' 이니 '아파트주
민' 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했었어요.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행동 살이온 이야기
부터 꺼낸 이유는 아마도 이번 기회가 제게는 우리 마을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심
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이면 엄마 손을 잡고
오종중 모여드는 아이들과 그들 곁을 성실히 지켜주는 어머님들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제게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수업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느낌을 신나게 드러낼 수 있
게 하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일들로 인해 살아있고, 그 속에 어우러
진 사람들로 인해 살 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이 수업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 같아요!

02

개야~ 개야~ 검둥개야~

무더운 여름 열악한 조건에서도 아이들은 시원한 집과 학원을 두고 풍물반 수업을 하는 풀장으로,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아는 만큼 들리기도 한다. 텅 텅, 쿵따쿵 지깡지깡지깡깡 등등등등



커리큘럼
(저학년) 오방진, 별달거리, 개타령
(고학년) 오방진, 별달거리, 진오방진, 산반농악

2부제 수업 인원은 많고, 악기는 부족하고, 실력들도 제각각,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찬 학생들에 비해 공간이 좁았다. 고심 끝에 1시부터 1시 40분까지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1시 40분부터 2시 30분까지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풀장에서의 수업

방음 시설이 없는 학교 일반교실에서 진행되던 풍물수업이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고심 끝에 부녀회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로 사용할 수 없던 풀장을 아이들의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지 많은 풀장을 청소하고, 시끄럽다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벽에 나름의 방음시설도 했다. 악기의 도난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설치를 끝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풀장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과 음악소리가 피어났다.

더워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으로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유난히 주위가 산만한 날은 밖으로 나가 풀장 한바퀴 뛰어 갔다 오는 별도 주지만, 아이들은 별을 더 즐거워하고 힘껏 뛰어논다. 그럴 때면 잔뜩 무서운 표정을 짓던 김순중 선생님도 아이들의 순진함에 웃음을 터트린다. 결국 모두 함께 뛰어 놀고, 웅기중기 모여 이야기도 나눈다. 역시 아이들은 뛰어놀 때가 가장 아이들 같은 표정을 보인다.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듯 왔다 갔다 하는 요즘 아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풀장은 마음껏 악기를 두드리고, 뛰어 놀 수도 있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



앗! 풀장에 불이...



풀장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다. 큰불은 아니었지만,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고 당분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강의를 진행하기엔 불가능 했다. 어렵게 마련한 공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더욱 안타까웠다.



다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업! 텅 빈 운동장의 정글짐 옆 그늘에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마련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돗자리 위에 자리를 잡고 하나 둘 앉아 두드리기 시작하니, 어디서 듣고 모여들었는지 정글짐 위는 구경꾼들로 가득하다.



“저도 장구 칠 줄 알아요!”
구경하는 친구들 중에는 ‘딩딩 쿵따쿵’ 입장단을 따라하며 함께 수업을 즐겼다.



개야 개야 김둥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짓는 개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우리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짓지 마라
멍! 멍! 왈! 왈!

저학년 아이들의 이채, 삼채 장단에 이어 개타령을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순중 선생님은 “너희들이 정말 강아지같다!” 하시며 웃으신다.

항아리 마을

저학년 아이들의 수업은 비교적 집중력 있게 진행되었으나, 고학년 아이들의 수업은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한참 장난 많을 나이의 남자아이들 위주의 고학년 아이들은 그 동안 장소를 여러 번 옮겨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은 만형 준규와 이런 수업 분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그 일 이후 준규는 집중하지 못하는 동생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이채- 인사굿- 오방진- 넘이장단- 진오방진- 쇠넘이장단- 별달거리로 이어지는 장단을 하나의 소리로 모아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까?

그새 은행주공 어린이 풍물반의 이름이 정해졌다. 한솔이가 제안한 이름으로 항아리 안에서 악기를 치는 것처럼 소리가 이쁘게 울리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아 ‘항아리 마을’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우리의 ‘항아리 마을’은 과연 마을축제에서 장소를 여러 번 옮겨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우리 악기의 소리를 하나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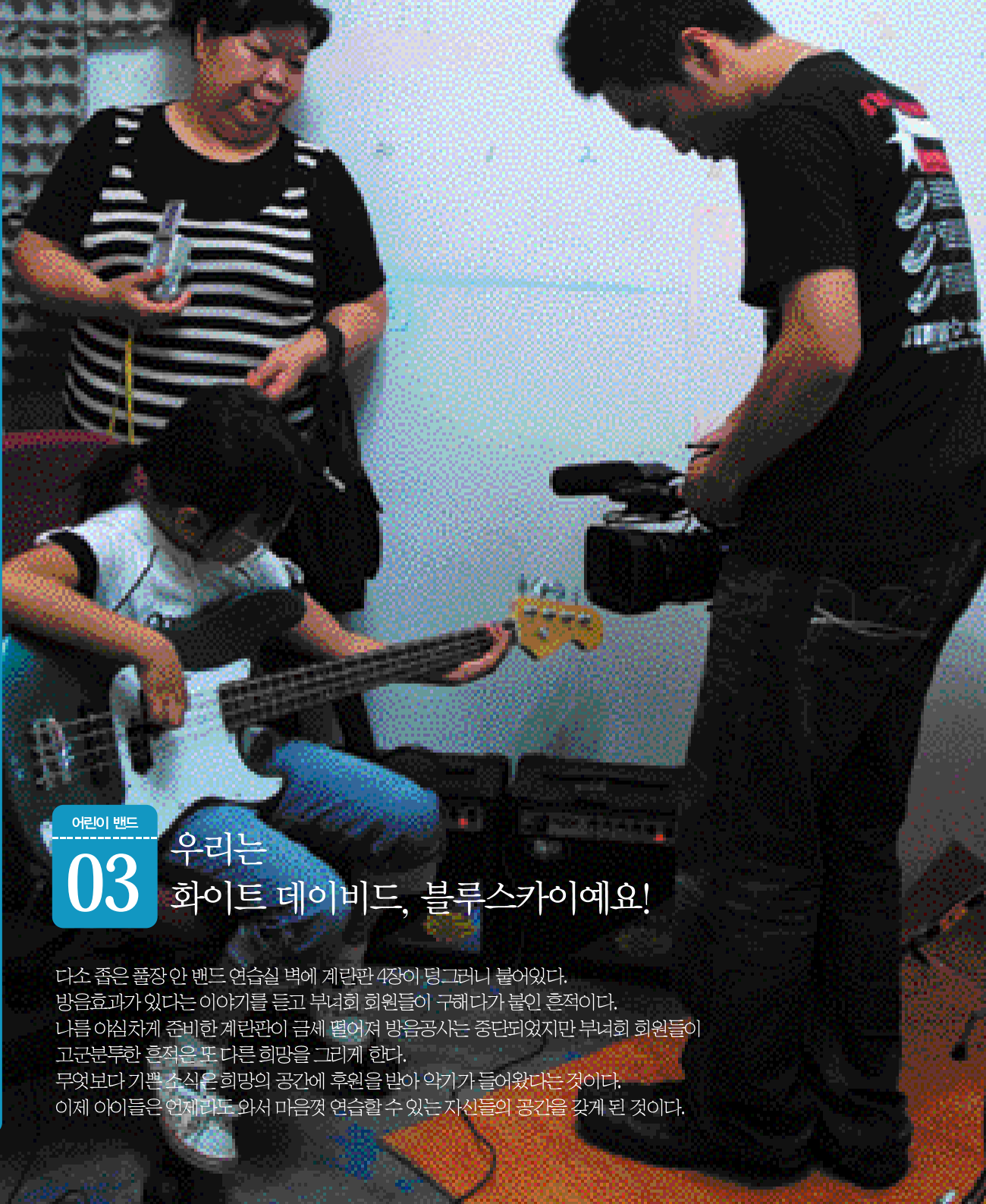
은행동 마을 축제에서 이름처럼 이쁘게 울리는 항아리 마을의 가락을 기대해 본다.



〈강사 인터뷰〉 **김순중** 풍물굿패 우리마당

첫 대면은 좀 난감했죠 아이들이 지금도 좀 신난하긴 해요, 민장을 만들 땐 너도나도 달라 붙어서 색칠을 해대는데 결국엔 그림낙서장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도 이런 모습이 아이들 이구나 싶어요 이전 제법 진지한 장호, 무표정하지만 장단을 잘치는 가희, 쉬지 않고 묵묵히 치는 세연이, 함께 쇠를 치며 뛰고 오글거렸던 만정, 한솔이, 덩칠 보나, 뿔로 보나 가장 고학년이지만 동생들과 잘 어울리고 이겼저겼 도왔던 준규... 요즘은 운동장에서 장구를 치다보니 친구들 공치는 모습에 더 눈길이 가고요 미당 뛰어 놓고 싶은 남자아이들, 그녀 석들을 어찌하면 공놀이보다 신나게 장구를 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내 이런 과정들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항아리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풍물굿패 우리마당은 자랑스러운 민족유신인 풍물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밴드

03

우리는 화이트 데이비드, 블루스카이에요!

다소 좁은 풀장안 밴드 연습실 벽에 계란판 4장이 덩그러니 붙어있다. 방음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녀회 회원들이 구해다가 붙인 흔적이다. 나름 아심차게 준비한 계란판이 금세 떨어져 방음공사는 중단되었지만 부녀회 회원들이 고군분투한 흔적은 또 다른 희망을 그리게 한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희망의 공간에 후원을 받아 악기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언제라도 와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방송국에서 우리 찍으러 왔어요~

각 동네의 의미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EBS의 프로그램에서 ‘풀장환상’을 찾아왔다.

마침 어린이 밴드 아이들이 연습하는 금요일에 취재를 와서 은행주공 곳곳과 풀장,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방송국에서 온다니 아이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연습하기에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은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고 땀 흘리며 연습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악기를 다루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때마침 생활정보지 교차로 플러스에서도 아이들을 취재하러 와서 마치 유명 연예인의 취재 열기를 방불케 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몸집에 커다란 베이스를 연주하는 태림이가 눈에 띄어 카메라가 집중되었다. 촬영이 끝난 후 아이들은 꼭 TV를 보겠다고 언제 방송되는지 예쁘게는 나오는지 방송국에서 온 작가를 졸졸 따라다니며 물어본다. 은행주공 어린이 밴드 첫 방송 출연!



풀장은 우리들의 연습실

땀땀땀땀!!

스틱이 마주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를 시작으로 기타와 베이스, 신디의 연주가 뒤를 따른다.

한참을 달려가던 연주는 각 악기별로 자신의 음색을 뽐내기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난다. 짧은 연습시간이었지만 제법 호흡이 맞는다.

그 동안 아이들은 팀별로 곡을 선정하고 자신이 맡은 악기별로 연습에 들어갔다. 코드를 배우고 마디 마디 연주를 반복하던 일렉과 베이스를 맡은 아이들의 작은 손 끝에는 굳은 살이 보인다. 발로 밟는 베이스드럼, 오른 손으로 치는 하이햇, 왼손으로 치는 스네어, 그 외에도 많은 북과 심벌로 이루어진 드럼은 몇 차례 주인이 바뀌는 서러움을 겪었다.

제법 자신의 악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어디에서 함께 연주하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다시 연주에 들어가는지 전체 뼈대를 맞추는 색션 연주를 통해 팀의 호흡과 조화를 배운다.

따스하던 봄날은 어느덧 지나가고 악기와 친해지기 위해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 예전 같으면 이 곳 '풀장'에서 물장구치며 더위를 식히겠지만, 지금은 '풀장환상'에서 문화예술의 향기에 흠뻑 젖어 더위를 물리치고 있다.



키도 크고, 음악 실력도 훌쩍

이번 여름에는 무더위와 소나기가 번갈아 가며 은행주공을 찾아왔다.

자주 내리는 비를 피해 오랜만에 찾아간 은행주공 밴드 아이들은 그새 키도 컸고, 악기를 다루는 실력도 훌쩍 커져 있었다.

여자아이들 팀은 블랙스타, 보컬 소윤이와 신디 다연이, 남자아이로 구성된 또 다른 팀은 화이트데이비드라고 밴드 이름을 정했다.

교육시간도 분리해서 먼저 블랙스타가 윤하의 '혜성' 연습을 끝낸 후에, 화이트데이비드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연습한다.

이제는 각 파트별로 일렉기타의 애드립, 베이스 솔로, 드럼 필인(Fill in) 등 각 악기별로 마디에 따라 기교를 덧붙이니 한결 음악이 풍성하고 맛깔스럽다.

신디를 맡은 한솔이는 이현창 선생님의 현란한 변주도 곧 잘 따라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보컬 소영이의 목소리도 우렁차다.

또 한 명의 보컬 소윤이는 아직 쑥스러운지 고개를 떨구고 노래를 불러 악기소리에 묻히는 경향이 있다. 다 같이 연주를 하다 보니 급한 마음에 음이 빨라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놓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04 바늘에 실 꿰어, 종이를 꿰매볼까

북아트 수업은 한 두 차시에 걸쳐 1개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

이것도 책인가요?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신기한 책부터 속지, 면지, 표지, 책등, 책머리띠 등 구조를 갖춘 책까지. 본격적인 북아트의 세계로 떠나보자.

콘 아이스크림 깔때기가 필요해요~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날씨에 북아트 재료로 콘 아이스크림 깔때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연 아이스크림 깔때기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 계란, 아이스크림 깔때기.. 그 재료도 특이한 오늘의 책은 '오브제북' 삼꾼으로 속이 빈 원형 네트를 만들고 예쁜 종이를 쓴 계란껍질 안에 10년, 20년 후의 자신이 꿈꾸는 모습,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등을 담은 조형적인 책이다.

우선 풍선을 달걀 4~5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분 후 목공용 풀을 바른 삼꾼을 풍선에 돌돌 감아 모양을 잡는다. 이때 콘 아이스크림의 깔때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생크림 주머니처럼 깔때기의 밑을 조금 잘라내고 목공용 풀을 채워 넣고 실을 통과시키면 자연스럽게 풀이 묻는다. 풀이 마른 후 풍선을 터트려 살살 떼어내면 네트가 완성된다. 이 틀은 책의 표지에 해당하는데, 실로 만든 동그란 공 안에 이야기를 바구니처럼 담아보는 것이다.

삶은 계란에 문양지를 붙여 하루정도 말린 후 반으로 쪼개서 속만 빼내면 멋진 달걀 껍질 오브제가 만들어진다.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속지를 붙이면 오브제북 완성.

기준에 인식하고 있는 책의 형식에서 벗어난 조형적인 미술작품에 가까운 오브제북은 달걀 하나하나에 엄마가 바라 본 우리 아이의 장점, 칭찬거리, 고쳤으면 하는 습관, 아이들과 행복했던 순간, 아이들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어느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 만 하고 마는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함께 책을 만드는 동안 다른 사람이 만든 책 속에 담긴 누군가의 이야기는 마치 어린 시절 동생의 일기장을 몰래 보던 것처럼 재미나기만 하다.



한국식 바인딩

파일복, 플래그북 등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은 가위와 풀을 사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책이었다.

이번 시간은 북아트에서 주요한 과정인 북바인딩을 하는 시간.

북바인딩은 책이라는 오브제를 하나로 묶는 과정으로 책의 내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요소일 뿐 아니라 바인딩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기도 한다.

물론 은행주공 북아트 수업은 북바인딩의 걸음마 단계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아닌가.

동양식 바인딩은 아시아권에서 널리 쓰이는 바인딩 방법으로 옛날 서책을 떠올리면 상상하기 쉽다. 중국의 경우 5~6개 혹은 그 이상의 구멍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5개, 일본은 4개의 구멍이 보편적이다.

우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신비로운 동양 느낌이 가득한 비단지로 보드를 감싸 겉표지를 만들었다. 이제 속지와 겉표지를 묶기 위해 5개의 구멍을 만들 차례. 2명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책을 고정하고 한 사람은 아이렛(구멍이 있는 원형 펀치)을 대고 망치질을 한다. 최강 파트너 강정희씨와 이경진씨의 숙련된 솜씨에 다른 주부들도 슬쩍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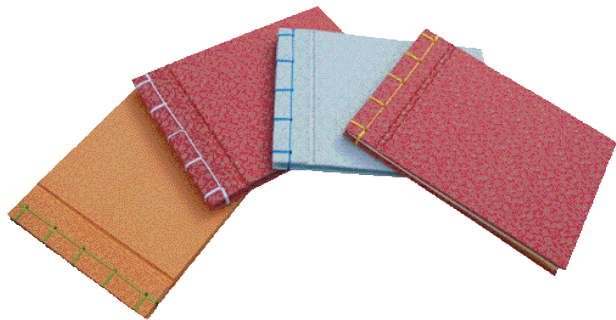
표지를 만들고 구멍을 뚫고 나면 실로 예쁘게 꿰매는 일만 남는다.

고작 5개의 구멍이지만 방식은 금물.. 들고 나는 순서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집중해야한다.

시작과 끝에 매듭이 없는데도 책이 튼튼하게 고정되는 것이 신기한 한국식 바인딩.

소박하지만 강단진 것이 문화배움터 주부들을 닮았다.

책 밖으로 드러난 바느질이 멋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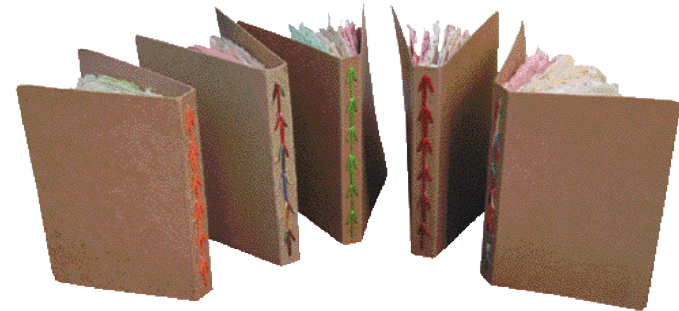
나만의 종이 만들기

1. 안 쓰는 종이를 물에 불린다.
2. 물에 불린 종이를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간다
3. 종이를 갈아 만든 죽에 녹차가루나 홍차가루, 양파 껍질 간 것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이죽에 색을 입힌다.
4. 얇은 막으로 된 채를 종이죽에 넣고 떠 올린다.
5. 나무 판자나 판판한 판에 뜬 종이죽을 올려 말린다.
6. 말리는 과정에서 낙엽잎이나 말린 꽃을 넣어도 예쁘다.



내가 만든 종이로 책 만들기

1. 만들어진 종이를 반씩 접는다.
2. 겉표지를 속지보다 약간 크게 만들고, 속지의 분량을 생각해서 3등분으로 접는다.
3. 겉표지와 속지를 꿰매기 위해 겉표지에 송곳으로 미리 비늘 구멍을 만들어준다.
4. 겉표지와 속지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꿰맨다. 같은 모양이지만 꿰매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양이 나와 예쁘다.





한지공예도 애기 다루듯이 해야지

한지공예 수업풍경은 어느 가내수공업 공장의 그것도 사뭇 비슷하다. 어느새 서랍장, 콘솔, 화초장 등의 가구를 만들고 있어 모두들 공예가의 품모가 느껴진다.

수업시간에 만드는 작품의 크기와 색상, 문양 등은 수강생들이 직접 선택하는데 화려한 원색의 한지를 붙여 만든 화려한 작품도 있지만, 배움터에서 인기를 끈 빛깔은 은은한 갈색톤이다. 이것은 검은색 한지를 섬세하게 붙인 후 락스를 살살 묻혀 고풍스럽고 맛깔스럽게 색을 뺀 것이었다. 지난 시간에 해봤던 김선미씨가 다른 주부들에게 “애기 다루듯이 해야지~”라고 가르쳐준다.

이선희씨는 이상덕씨가 락스로 색을 뺀 한지를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 장난을 치더니 결국 본인도 색이 많이 비라고 말했다. 옆에서 애기 다루듯 하라는 말에 “저 언니는 애기 키운지 오래돼서 몰라~” 이야기 꽃을 피우게 되는 한지공예 시간은 매 수업마다 가구나 소품들이 만들어져서 그런지 주부들의 욕심이 많이 묻어난다.

한지공예

05

사소하지만 커다란 변화

한지공예를 비롯한 문화배움터의 대부분의 수업은 은행주공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부녀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각종 재료를 늘어놓고 편히 앉아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풀작의 공간은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부녀회사무실의 재발견이다.

부녀회 회원들이 회의 때나 잠시 머무르던 공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주부들은 그 존재 유무조차 잘 몰랐던 장소. 그래서 바로 옆방 노인정 어르신들이 점유했던 곳. 이곳에 거의 매일 배움터를 위해 주부들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한지공예 수강생들은 작품의 몸체가 커질수록 부녀회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수업시간 외에도 이곳에서 배움터 주부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왕언니는 외롭다~

한지공예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필요하다. 12시에 끝나는 화요일 수업도 매 수업마다 12시가 훌쩍 지나서야 뒷정리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헤어진다. 그런 만큼 숙제도 많은데 생각보다 숙제를 해오기가 쉽지 않다. 다들 나무틀에 검은색 한지를 다 붙이고 와서 오늘은 락스로 색을 바라게 하기로 했는데 한지공예의 왕언니 김정자씨는 숙제를 다 해오지 못해서 검은색 한지를 붙이고 있었다. 락스로 한지에 색을 빼던 다른 주부들은 “언니~아직 멀었어? 빨리 하고 와~”라고 하니 김정자씨 하는 말 “왕언니 외롭다~~” 평소 토박토박 말도 잘하고 귀여운 손주 태인이를 데리고 오는 왕언니 김정자씨는 한지공예 수업에서 왕언니처럼 챙겨주는 것도 많고, 분위기도 즐겁게 만들어준다.

어머나! 사슴이 뛰어노네~

어느새 한지공예 하는 주부들은 강사가 없어도 똑딱 훌륭한 가구를 만든다. 번쩍번쩍 수납장을 완성해 온 주부에게 모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옆에서 북아트 수업 중인 주부들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다며 한지에 갈로 문양 파는 것을 힘들어하더니, 이젠 누가누가 더 예쁘고 정교하게 파는지 내기를 하듯이 주부들의 숨씨가 날로 빛나간다. 문양도 가지각색 사슴이 뛰어놀기도 하고, 사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요즘 한지공예 시간은 약장, 제기장, 작은 상, 제주장...같은 큰 가구들을 만드는데 다들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작품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로 된 똑같은 장이었는데 어느새 검은색 한지를 덮고 락스로 색감을 줄이면 갈색 그을음은 멋진 장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김미숙씨는 문양 파는게 너무나 재밌다고 하며 다른 주부들의 문양도 파다 주고, 12시 넘어서까지 문양을 파는 자기가 신기하다고 했다. 한지공예를 하는 시간만큼은 네 것, 내 것이 없다. 빨리 끝낸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고 아직 갈 길이 먼 주부들은 옆에서 같이 하면서 고마운 웃음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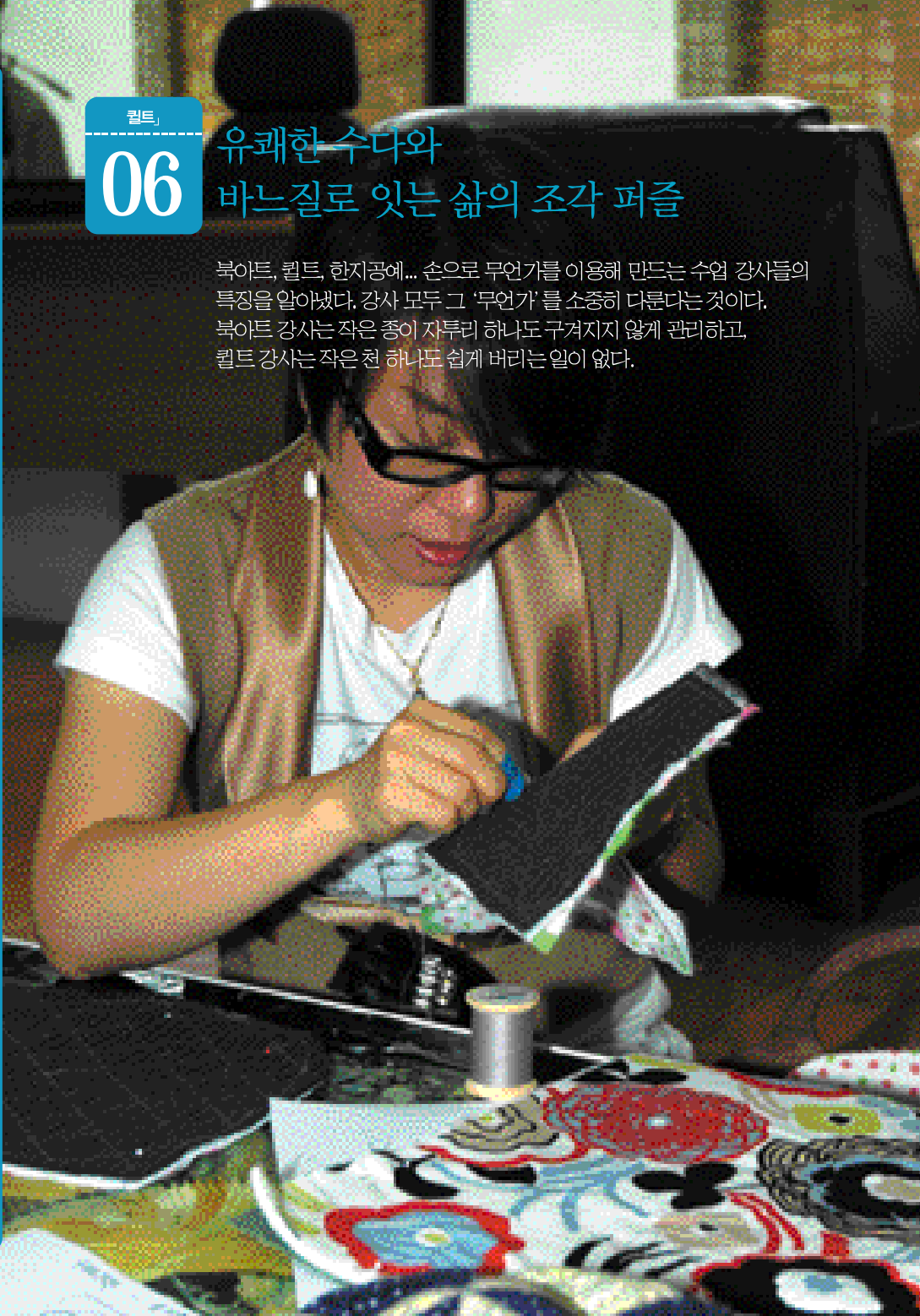


퀼트,

06

유쾌한 수다와 바느질로 잇는 삶의 조각 퍼즐

북아트, 퀼트, 한지공예... 손으로 무언가를 이용해 만드는 수업 강사들의 특징을 알아봤다. 강사 모두 그 '무언가'를 소중히 다룬다는 것이다. 북아트 강사는 작은 종이 자투리 하나도 구겨지지 않게 관리하고, 퀼트 강사는 작은 천 하나도 쉽게 버리는 일이 없다.



딸 주기도 아까워라~ 살살 만져~ 머리카락 빠진다.



다들 지난 시간에 만든 예쁜 인형이 달린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 주부들. 인형 머리카락도 예쁘게 실로 땅아주고 얼굴도 각자 웃는 얼굴, 발그레한 볼이 너무나 귀엽다.

딸내미가 만지기라도 하면 “머리카락 빠진다”, “얼굴에 때 탄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만지라고 신신당부를 한다고 한다.

몇 주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퀼트 베테랑이 된 주부들은 그사이 만든 핀쿠션, 파우치, 가방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강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쫄가리’ 천으로 동전지갑을 만들기로 했다. 주부들마다 가지고 있는 남은 천이 달라서 동전지갑마다 멋이 다르다.

민수야~너도 동전지갑 만들어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 주부들은 많이 가까워졌다.

다들 아이 이름이 어느새 주부들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휴지케이스를 만들던 김순희씨는 다른 주부들이 만드는 동전지갑이 맘에 들었는지 “민수야~ 우리도 동전지갑 만들자~”하며 이선희(민수 어머니)씨 천까지 재단해서 준다.

“민수에게 이쁨 받고 싶었어.”라고 하며 자연스레 건네는 모습에 퀼트반 수업은 화기에애해진다. 무언가를 같이 만들며 쌓여가는 정들은 아마 고충과 만족감을 함께 나눠서일 것이다.

가방끈 쟁탈전

퀼트의 멋은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천은 물론이고 단추나 끈 등의 액세서리 또한 제각각 취향대로 고른다.
 이번에 만들 가방의 끈도 천으로 된 끈, 가죽으로 된 끈 등 다양한데, 머리를 뺀
 냥 곱게 뺀아져 있는 갈색 가죽끈을 모두들 탐낸다. 인기 만점 가방끈은 결국
 가장 먼저 점찍은 조재일씨에게 돌아갔다. 가방끈 쟁탈전이 끝나자 조애경
 강사에게 끈 다는 법, 가방 다리 세우는 법, 단추 붙이는 법 등 부자재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운다.

여유속의 꼼꼼 창조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고마운 지금, 주부들의 퀼트솜씨는
 “하하하~” 농담을 하면서 바느질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이제는 수업시간에
 만드는 것 외에도 서로 만들고 싶은 목록을 정해 놓고 따로 천을 구입하고
 하나씩 완성을 하고 있었다.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는 반장 박은진씨는 가방 앞면 무늬를 곱게 바느질을 해
 모두들 “은진씨는 수를 놓네~”라고 감탄한다. 한 땀의 길이마저 똑같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다양한 크기의 천을 이어 붙여 만든 찬장위에 찻잔과
 주전자가 놓여있다. 그 동안 만들었던 퀼트 제품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탐낼만한 귀여운 소품이거나 가방,
 쿠션이었는데 이번엔 크기부터가 다르다.

작은 무릎 담요 크기 정도로 벽에 걸면 벽걸이, 무릎에
 덮으면 무릎 담요, 접어서 앉으면 방석이 된다고 한다.

크기가 큰 만큼 손도 많이 가고 바느질이 잘못 됐을 경우
 다시 풀러야 하는 아픔도 크다. 벽걸이는 지금까지 배웠던 퀼트의 기본적인
 바느질과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이번 퀼트 수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퀼트 용품이다.

목요일 오전 퀼트를 하는 주부들은 각자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마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생기는 일들을 서로 고민 털어놓듯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퀼트 강사가 아이들 눈술도 가르친다
 고 하니, 이것저것 도움 될 만한 것을 묻
 기도 하고 아무래도 퀼트 수업은 여러 가
 지를 얻어가는 수업인 것 같다.



다른 천들을 조화롭게 엮으면서 한 땀 한
 땀 지나가는 바느질의 길처럼 우리의 문
 화배움터도 이웃과 소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카리큘럼 |
 풍선으로 앵글의 차이 이해하기 · 눈에 보이지 않는 빛에도 색이 있다,
 빛의 위치에 따라 사진은 달라진다 · 유명 사진작가들의 삶과 그의 사진들
 픽처스토리란? · 신나는 야외 출사



사진반
07

탄생, 포토줍마!!

은행주공이줍마 사진모임 '포토줍마'
 사진에 대한 열기로 인해 유난히 더 무더웠던 2008년의 여름,
 그들의 삶의 터전인 남한산성과 은행주공아파트 곳곳을 돌아보는 출사를 통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본다.

드디어 첫 출사다!

첫 출사의 장소는 남한산성!

가깝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에 부녀회 사무실 안에만 있기가 답답하던 터였다. 오전 9시 남한산성 입구 하나, 들쭉 낮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부들의 아침시간은 얼마나 분주한 때인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손자까지 돌보는 왕언니 김정자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의 식사를 챙겨놓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위한 도시락까지 준비하셨다. 아이 셋을 키우는 사진반 반장 최미경씨는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다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작동이 되지 않아 울상이었다. 다른 분들도 말씀은 안하셨지만 오늘의 출사를 위해 부산하게 보냈을 주부들의 아침시간을 상상할 수 있었다.

모두들 오랜만의 소풍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검은콩과 깨를 직접 갈아 만든 콩물, 샌드위치, 김밥, 포도즙에 석류즙까지 갖가지 먹거리가 펼쳐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합시다!!



카메라로 본 세상

처음 와보는 곳도 아닌데, 카메라로 바라본 남한산성의 자연은 낮설고 흥분된다. 똑딱이로 불리는 콤팩트 카메라의 접사 기능을 배운터라 평소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조그만 뱀딸기의 빠알간 열매도, 이름모를 작은 풀들도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의미가 되어 자리 잡는다.

"곽쌤~ 이 뱀딸기 찍고 싶는데 셔터가 안 눌러져요!"

"조금 떨어져서 찍어보세요!"

초점거리라는데 있어서 너무 가까우면 초점을 못 잡거든요."

한 가지에 달린 같은 무늬의 나뭇잎도 빛이 비치는 정도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빛깔로 반짝인다는 사실도 직접 프레임 안에 담아보고는 그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이런 저런 지식들을 직접 촬영을 해보며 익히니 훨씬 쉽고 재밌게 다가온다. 이것이 출사의 진정한 묘미다.

익숙한 공간에서 담아보는 순간

수업은 일주일동안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사진에 대한 이론 강의가 끝나면 배운 내용을 직접 밖에 나가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그날 수업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단체 사진을 남김으로써 마무리된다.

은행 주공아파트의 여름은 푸르름과 햇살이 가득해서 굳이 실습을 위한 출사를 위해 먼 곳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익숙한 공간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낮설고 평소와 다른 의미를 지닐 때가 많다. 항상 나를 비추던 익숙한 햇살도 빛에 따른 느낌의 변화와 순광과 역광에 대한 개념을 들은 후에 찍어본 사진 속의 그것은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직접 모델이 되기도 해보고 항상 보아오던 것들을 그날 배운 수업에 기초해서 사진을 찍어본다.

얼굴에 있는 두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외에 이들에게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또 다른 눈이 생겨가고 있다.

감자탕 결의

송정란씨가 운영하는 감자탕 집에서 포토줍마 회식이 있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던 중 누가 먼저인지 자연스럽게 10월에 있을 마을축제 이후에 대한 주제가 흘러나왔다.

"우리 10월 마을 축제 이후에 사진 수업 끝나면, 가다 오다 만나도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로 변하는건 아닐까?"

오랜만에 가지는 편한 모임이 강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한명 두명씩 흘러나왔다.

이때, 우리의 왕언니가 한말씀 한다.

"내가 고문할게, 회장은 순희씨가 해!"

"어렵게 일군 모임을 이대로 유야무야 없어지게 둘꺼야?"

"마을 축제가 끝나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진찍자구!"

마을 문화공동체를 만든다는 사업의 진정한 목표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곽쌤도 축제 이후의 이들의 자발적 모임에 도움을 주기로 하면서 이날의 회식은 감자탕 결의가 되었다.

〈강사 소개〉 곽대현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

문화배움터 사진 수업은 사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평소 아이들 사진을 찍으면서 궁금했던 점 사진을 찍을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각자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 그 사진들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수업하러 오는 길에 찍은 열매나 꽃을 보여주면서 마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이웃과 가족과 이웃, 나아가 자연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이지요. 끝이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모습이라면 20주 뒤에는 모두들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은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자, '소통'을 주제로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 하고, 미디어를 통해 나누고,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사랑방 문화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 듯 영상언어를 배우다.

아파트를 쓸어내릴 듯한 기세로 내리던 장대비도 모두 지나가고 본격적인 8월 무더위가 시작된 은행주공아파트 강원도 계곡과 시원한 수박 한덩이 간절할 한낮 더위에 어린이들의 배우의 열기가 더해졌다. 수천년 전통의 동양화에서부터 21세기 최첨단 영상미디어까지 그 배우의 열기 속으로 Go! Go!



일시 | 2008. 8. 4~8. 8 오전 10시~12시
플장 | 남한솔, 김민정, 이주은, 아하은, 이채은
참여 | 이상훈, 채정길 (상남미디어공동체 늘봄)

#1. 내 마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

신나는 여름방학! 영화를 함께 만들 어린이는 모여라!
다음 학기 교과외의 선행학습을 통해 다른 친구보다 앞서가는 것도 좋겠지만 방학엔 역시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이 최고.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상 수업은 가족 휴가나 캠프 등으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현장의 땀방울과 붉게 상기된 얼굴 속에서 공동체적 창작의 기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솔아! 오늘 아침 엄마에게 칭찬을 받아 너무 기분이 좋은거야. 네 기분을 친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말로 표현해요!"
"그래. 말 이외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몸짓을 포함해서 TV, 인터넷, 영화 등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불러."

#2. 사진으로 이야기 만들기

그럼, 이제부터 사진으로 내 이야기를 해볼까?
탁자에 늘어놓은 여러 장의 사진을 조합하며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처음엔 두 장으로, 그리고 점차 사진 장수를 늘려가며 이야기를 함께



[위쪽] 저는 이주은입니다. 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은행주공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아랫쪽] 저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풀장화장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상수업을 하고 있어요.

만드는 스토리텔링 수업에 참여하며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 영상에 한걸음 다가섰다.

#3. 캠퍼는 내 친구

본격적인 영상제작 수업이 시작되었다.

캠코더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배운 후 촬영실습을 시작하니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영상을 만들어야한다 사실이 실감나는 모양이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역할을 하지?

귀신이야기, 숨바꼭질 놀이 등 다양한 주제가 오고가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곳 바로 '은행주공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리포터 남한솔, 카메라 이주은, 오디오 이하은,

연출 김민정. 그리고 뒤늦게

스텝으로 참여한 주은,

하은의 동생 채은이 딱따기

2008년 8월 아이들의 눈으로 본 우리동네. <은행주공을 소개합니다>



#4 레디 액션

“제가 살고 있는 은행주공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는 남한산성의 산줄기를 따라 이어져 울창한 숲속에 있어요.”

낭랑한 목소리의 리포터 한솔이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 마을 소개를 시작하자 딱따기(슬레이트: 영화 촬영시에 한 쇼트가 시작될 때마다 치는 도구)를 든 막내 채은이가 바빠진다.

“선생님, 여기를 2로 고쳐요?”

리포터 한솔 언니와 카메라맨 주은 언니가 실수할 때 마다 숫자를 고쳐 써야하는 채은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쉬는 일은 없다.

“오디오 확인하고, 카메라, 레디 액션!”

시계탑, 풀장, 아파트 여기저기 이동하며

이틀 동안의 촬영이 모두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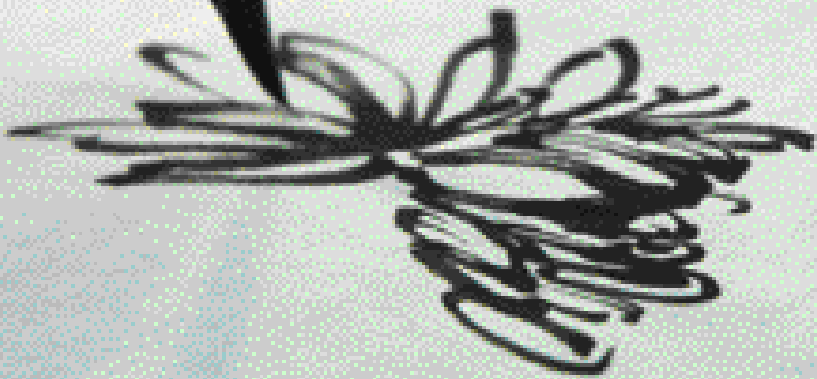
아이들의 눈에 비친

은행주공아파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이 덧새 만에 사군자를 잘 그린다든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물을 머금은 붓이 한지에 닿는 촉감, 열고 짙은 먹의 농담으로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를 그리는 경험은 아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을 겁니다."



신나는 여름방학 특강 II 어린이 동양화

풀장에 수묵향기 그윽하네.

일시 | 2008. 8. 4~8 8 오후4시~6시 풀장

참여 | 홍성조, 남지현, 고산형, 주유빈, 박소윤, 박진형, 김민정, 권은정, 규원, 김은경(학부모)

강사 | 유명현(수묵향기), 박미영(대원목향)

매(梅)난(蘭)국(菊)죽(竹) 사군자의 향기 속으로

난(蘭) 행복한 우리 집

풀장 한편의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하게 자리잡은 탁자 위로 검은 담요와 벼루, 붓, 물통 등이 놓여졌다. 사랑방문화클럽 수묵향기의 유명현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이자 대원목향 회장인 박미영님은 일찌감치 풀장에 나와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아빠, 엄마, 오빠, 나..

“첫 번째 즐기는 아빠, 그 다음은 엄마인데 서로 마주보아야 어울려요, 서로 등지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웃집 아저씨.

여기저기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하더니 행복한 우리 집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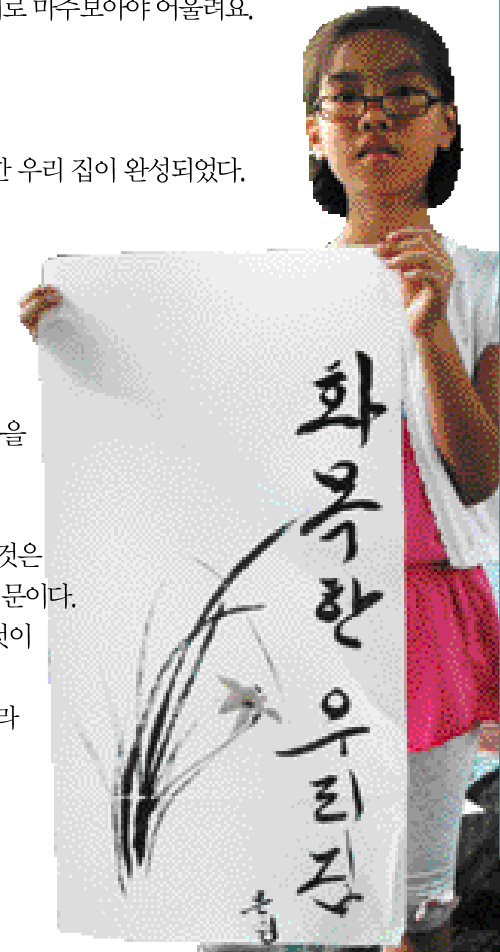
매화(梅畵) 와~ 일지매다.

선생님께서 풀장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가져와 가지의 생김새를 설명해주신다. 마디와 마디가 이어지고 이내 추위를 이겨 봄을 알리는 매화가 피어났다.

“와 일지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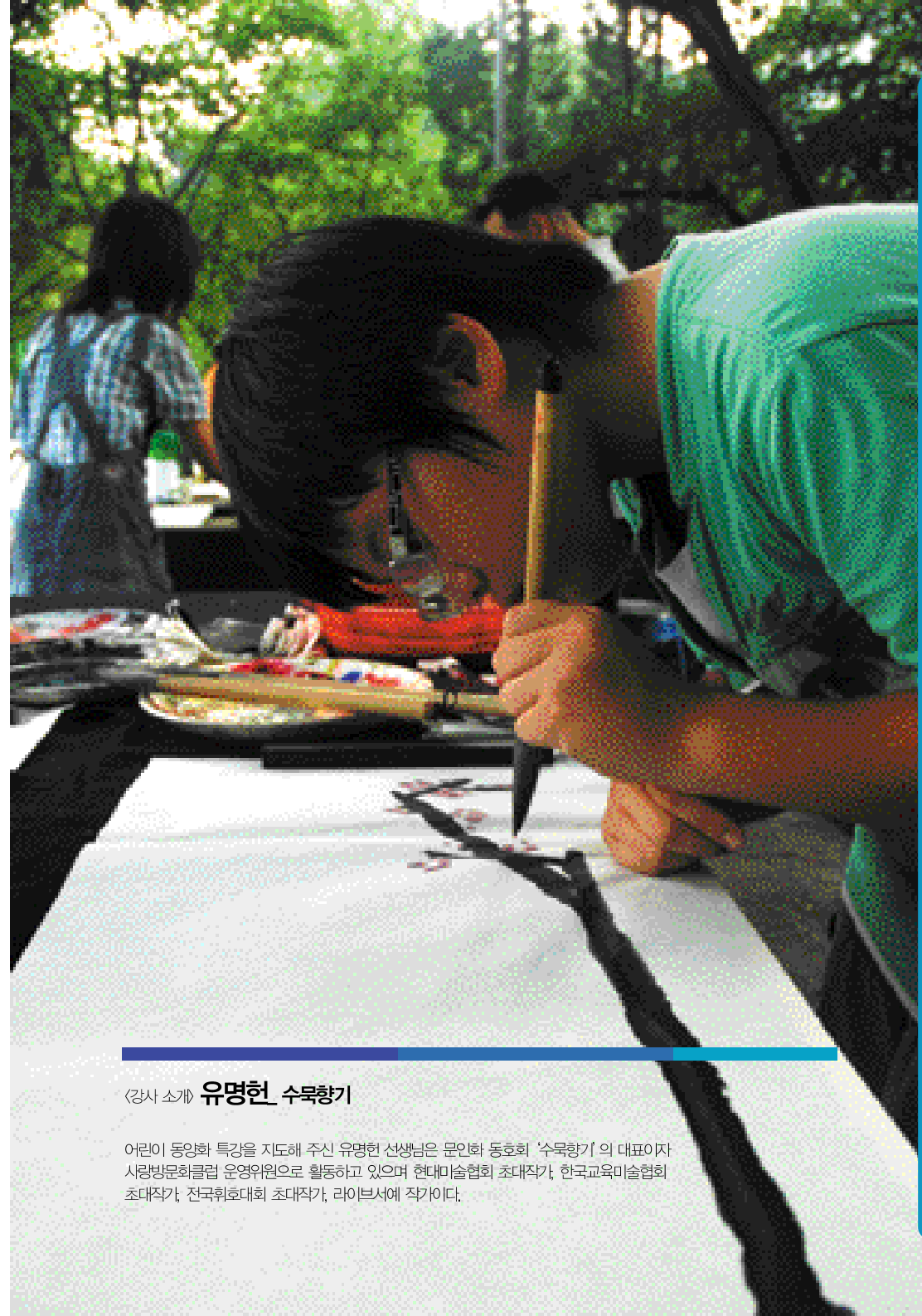
여기저기에서 일지매라는 탄성이 터져 나온 것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모 방송사의 드라마 때문이다. 일지매가 자취를 감추고 난 후에 꼭 남기는 것이 바로 붉은 매화.

아이들은 자신의 족적을 남길 매화를 그리느라 여념이 없다.



국화(菊花), 죽(竹) 플장의 수제자들

며칠 전 내린 비에 플장의 미끄럼틀 한 켠에 작은 웅덩이가 생겨났다.
 웅덩이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올챙이들... 때늦은 산란이 쑥스러웠는지
 어미의 존재는 찾을 길이 없고 아이들만 신이 났다.
 난초와 매화를 바빠 그리더니 올챙이 곁으로 뛰어간 저학년 녀석들과는 달리
 소운이는 대나무에, 성조와 지현이는 국화 삼매경에 빠졌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양화 수업에 함께한 서예 5년차 소운이의 어머니 김은경씨.
 그 어머니에 그 딸이다. 학원에서 2년 정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어 글과 그림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단짝친구 성조와 지현이,
 시원시원한 대나무의 달인 소운이. 플장의 수제자들이다.



〈강사 소개〉 유명현 수묵향기

어린이 동양화 특강을 지도해 주신 유명현 선생님은 문인화 동호회 '수묵향기'의 대표이자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미술협회 초대작가, 한국교육미술협회 초대작가, 전국회화대회 초대작가, 라이브서예 작가이다.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은행주공의 곤충이야기

벌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벌레들이 살지요. 벌레하면 약간은 징그럽고 스멀스멀 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벌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꽃가루를 날라주고, 어떤 벌레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 주고, 또 어떤 벌레는 죽어있는 다른 동물들의 사체나 떨어진 낙엽들을 먹어서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도 하지요. 이렇듯 벌레는 우리가 사는 생태계에서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공에는 어떤 곤충이 있을까?

식물이 많은 은행주공아파트에도 곤충을 포함한 벌레들이 많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이 있어서 자연적인 숲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봄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꿀벌과 꽃등에, 흰나비가 많아요. 꿀벌과 꽃등에는 서로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꿀벌은 벌목의 곤충이고 꽃등에는 파리목의 곤충이랍니다. 힘없는 꽃등에가 독침이 있는 꿀벌을 의태해서 천적곤충을 속이려는 것이지요.

그 외 나무에 주로 붙어 있는 뱀허물쌍살벌의 집과 단풍나무에 붙어있던 좀말벌의 멋진 집도 보았지만 이런 말벌류는 쏘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 철거를 당합니다.

나비류는 흰나비류가 주로 많지만 간혹 아주 크고 화려한 은판나비나 왕오색나비 제비나비를 보기도 합니다.



곤충채집하러가요.
112동에 사는
김동현, 김동휘, 한정규

저녁 불빛을 따라 출입구 현관으로 들어온 곤충들을 보면 풍뎅이류와 나방류, 풀잠자리와 뉴스에서 가끔 해충이라고 나오는 주홍날개꽃매미도 심심찮게 볼 수 있지요. 8월 20일에는 엘리베이터 벽에 장식처럼 붙어서 노려보고 있는 베짚이를 만났습니다. 딱정벌레종류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먼지벌레는 물론 갑옷색이 아주 멋진 멋쟁이딱정벌레를 비롯하여 가끔 운 좋으면 넓적사슴벌레와 애시슴벌레를 만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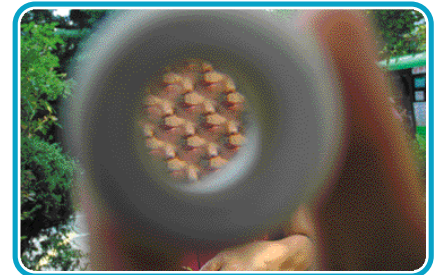
지구상에 가장 많은 식구

곤충은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도 많은 종수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알려진 것만 해도 150여 만종이라 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000만종이 넘을 것이라고도 추측해요. 크기는 작지만 지구상의 동물 중 가장 종류가 많고 어느 곳에서나 살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몸의 크기가 작아서 필요한 먹이가 적고 서식공간이 틈처럼 작은 곳에서도 살 수 있다.
2. 날개가 있어서 환경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3. 카틴질로 만들어진 튼튼한 껍질이 있어서 외부의 지극에도 강하다.
4. 생물 뿐 아니라 코르크피개 등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식성이 있다.
5. 한세대가 짧거나 성장이 빠르고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 중에서 환경이 변화해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6. 탈바꿈 시기에 따라 다른 환경이나 먹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천적이나 먹이부족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곤충의 일생

곤충이 몸을 바꾸면서 자라는 한차례의 일생을 한 살이라고 하는데 한 세대에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것을 완전탈바꿈이라 하고 번데기의 과정이 없이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는 것을 불완전탈바꿈이라고 하지요. 완전탈바꿈하는 곤충에는 나비 벌 파리 딱정벌레 등이 있으며 불완전탈바꿈하는 곤충에는 노린재 메뚜기 사마귀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있습니다.



매미 이야기

7월 중순경 장마가 끝나고 무더워지기 시작하면 아파트 숲 속에서 매미들이 하나 둘 울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매미가 울지만 숲속에서 매미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지요. 은행주공에서 매미구멍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103동 앞 매미 솟는 동이지요. 3~7년을 땅속에서 보낸 매미들이 땅위로 나와서 근처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는 겁니다. 103동 앞 매미구멍은 많은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매미가 솟는 곳을 110동과 121동 옆에서도 발견했어요. **매미구멍의 솟자대로 주변의 나무 줄기와 잎뒤에서 매미 허물을 찾아보세요. 운이 좋으면 막 허물을 벗고 있는 매미도 만날 수 있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참매미와 애매미 말매미 유지매미를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참매미의 울음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매미의 탄생 매미는 종류에 따라 3~7년을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살다가 허물을 4번 벗고 5령 애벌레가 되어야 땅에서 나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어요. 저녁 먹고 킁킁해지면 낮에 봐 두었던 매미구멍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막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편 매미는 몸전체가 옥색으로 아주 아름다워요.

무얼먹고 살지? 매미의 겹질을 주워보면 얼굴에서 배쪽으로 가는 주사바늘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매미의 빨대 주둥이랍니다. 매미의 애벌레는 땅속에서 나무뿌리의 수액을 빨아먹고 성충이 되어서는 나무의 줄기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입이 주사바늘 모양이랍니다.

매미의 눈은 다섯개? 매미의 눈을 관찰해보세요. 머리 양옆에 큰 겹눈이 2개 있는데 겹눈 사이를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면 빨간 보석 같은 홑눈이 역삼각 모양으로 3개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곤충의 겹눈은 주변 사물을 보고 홑눈은 빛의 세기를 감지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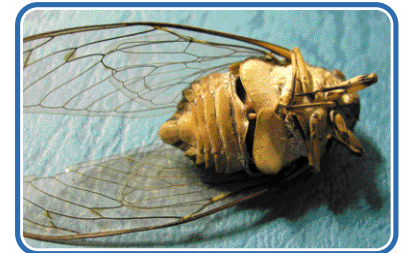
매암뽕.. 누가 우는 걸까? 매미의 암수를 구별해보세요. 암컷매미는 울지 못하기 때문에 배의 울음판이 퇴화되어 흔적만 있는데 비해 수컷의 울음판은 커서 금방 구별할 수 있지요. 첫 번째 배마디 양쪽에 한쌍의 얇은 막이 있는데 여기에 V자 모양의 큰 근육이 붙어 있어서 근육이 줄어들면 막을 당기는데 이렇게 근육을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소리를 낸답니다.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해야하는 암컷매미가 울지 않고 대신 수컷이 목숨 걸고 울며 암컷을 유혹하는 것이지요.

- 참매미는 모든 매미의 기준이 되는 매미이고 맴맴맴맴 하고 울어요.
- 애매미는 다른 매미보다 크기가 작아서 애매미예요. 울음소리는 높낮이가 있는 여러 음절로 되어 있어서 우는 소리가 이쁘다워요.
- 말매미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매미 중 가장 크고 울음소리도 가장 크며 시끄럽게 찌르르르 하고 울어요.
- 유지매미는 날개의 색깔이 마치 옛날에 한지장판에 기름을 먹인 색깔처럼 갈색이에요. 지이지 지글지글지글 하고 울어요.

매미의 산란? 매미는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기 때문에 산란란도 주사바늘 같이 생겼어요. 알은 보통 10~40일이 지나면 애벌레로 깨어나 나무에서 내려와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유지매미와 참매미의 알은 산란된 나뭇가지 속에서 그대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여름에 알에서 깨어나요. 유지매미는 여름한철을 위해 6~7년을 땅속에서 산답니다.



배의 울음판이 퇴화된 암컷 매미



V자 모양의 근육으로 소리를 내는 수컷매미



매미구멍



매미허물



무당거미 이야기

거미는 엄밀하게는 곤충이 아니라 절지동물이라고 하며 전갈, 지네, 진드기등과 가까운 친척이지요. 거미는 생태계에서 2차 소비자이며, 죽은 것이나 식물은 먹지 않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사지를 때 해충을 잡는 천적곤충인 생물농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미의 이름은 검은 것이란 뜻을 가진

‘거미’에서 유래하였대요. 그러니 무당거미는 몸색깔이 무당옷을 닮아서 알록달록한 거미라는 뜻이지요.

거미에는 거미줄을 치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배회성거미와 거미줄을 쳐서 사냥하는 조망성 거미가 있는데 무당거미는 거미줄을 치는 조망성 거미예요.

은행주공아파트의 오솔길들을 거다보면 숲가장자리에서도 무당거미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란 어미 무당거미는 10월말~11월에 해지고 난후 주로 나무줄기에 산란하고 나무껍질을 물어뜯어 위장한 다음 기력이 다할 때지 알을 지키다 죽는답니다.

부화 월동한 알은 5월경 부화하여 각자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흩어져서 거미줄을 치지요.

거미줄 거미가 밟고 다니는 방사선의 줄은 끈끈이가 묻어 있지 않으며, 원형의 사냥 거미줄에는 끈끈액이 달라붙어 있어 한번 걸린 곤충들은 쉽게 도망갈 수 없답니다.

무당거미의 거미줄은 기율이 깊어 갈수록 금색을 띠는데, 자외선영역으로 보는 천적곤충이 보았을 때 금색 무당거미줄은 잘 안보인대요.

원형의 거미줄을 잘 보면 중간 중간 라면처럼 꼬불꼬불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거위벌레 이야기

왕거위 벌레와의 50일

제가 살고 있는 109동 뒤편에 참나무가 많은 작은 숲이 있어요. 숲 아래쪽인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6월~7월에 바닥에 또르르 말린 나뭇잎이 떨어져요. 왕거위벌레가 짝짓기를 하고 나뭇잎을 자르고 말아서 그 속에 알을 낳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나는 발에 마구 밟히는 것이 불쌍해서, 시멘트 출입로에 떨어진 거위벌레의 요람을 주워서 숲가로 던져 주어요. 한번은 상수리나무에서 떨어진 요람을 주워다 관찰했는데 한달 정도가 지난 후에 약간 썩고 말라비틀어진 요람의 가운데쯤에 구멍을 뚫고 왕거위벌레가 쏙 빠져나왔어요. 관찰통에 옮겨 주고 나서 제 어미가 말해주었던 상수리나무의 잎을 따다 주었는데 잎이 역세져서 인지 먹질 않았어요. 안되겠다 싶어서 관리사무소 앞 숲속에 밤나무의 어린 잎이 있어서 따다 주었더니 밤새 구멍을 숭숭내며 먹고 잔뜩 똥을 싸 놓았지 뭐예요. 일주일 정도 관찰하며 키우다 남한산성 숲속에서 놓아주었더니 훨훨 짝을 찾아 날아갔어요.



112

이름이 왜 왕거위 벌레일까?

거위벌레는 종류에 따라서 마는 잎이 다르며, 알집을 떨어뜨리거나 그냥 매달아 두거나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거위벌레는 60여종류나 된다는데 지금까지 은행주공에서는 왕거위벌레만 보았어요. 가까운 남한산성에 가면 북방거위벌레 느릅나무혹거위벌레나 노랑배거위벌레를 비롯하여 많은 식물을 잎을 말아놓은 거위벌레들이 있어요.

목이 거위처럼 길고 공동이도 오리공동이처럼 생겨서 거위벌레라고 하였지요. 왕거위벌레는 1cm 정도로 아주 작는데 거위벌레 중에서 큰편이라서 왕거위벌레이지요.

거위벌레의 잎을 마는 노하우

- 거위벌레는 잎의 주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자른다음 주맥을 물어뜯어 잎을 약간 시들게 해서 잎을 말아요. 양끝을 교묘하게 싸 넣으면서 말아서 일부러 풀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손대면 사체놀이

- 거위벌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 요람에 알을 낳으면 며칠 후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고 어미가 말아준 잎을 속에서 깊이먹으며 자라다가 번데기가 된 다음 성충의 모습으로 요람을 뚫고 나온답니다. 건드리면 죽은척 하는 곤충들을 본적 있지요?

거위벌레도 사람이 건드리면 죽은척 꼼짝 안하는 의사행동을 합니다.



113

가을 결실맺기

은행잎은 어느새 하나 둘 노랗게 물들고 은행 열매는 풍년을 맞았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에 잠을 깨고, 여름의 무더운 땀방울을 이겨내어
사랑사랑 가을 바람을 맞으며 결실도 맺고 참으로 기특하다.
5월부터 시작한 문화 배움터도 어느덧 그 결실을 맺는 10월의 마을 잔치가
시작되었다.





AM 10:00 장수사진 촬영 및 사진 전시

이번 마을축제에서 포토존마 회원들은 자신의 기량을 주민들에게 뽐내는 사진전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을 기획했다. 장수사진 촬영은 어린이와 주부 중심의 문화배움터에 노인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포토존마 회원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 셔터를 누르는 기쁨을 알게 해준 뜻 깊은 행사였다. 수십 년을 나와 함께한 얼굴에 고스란히 남았을 삶을 네모난 사진틀 속에 담아내는 의식, 한 장의 장수사진 속에는 그들의 삶을 담으려는 포토존마들의 긴장되고 애정 어린 마음이 어려있다.

오전 10시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부산함이 가득하다. 사진관에서 볼 수 있는 조명 장비를 설치하는 분주한 손길들 틈에 신청자들을 챙기는 왕언니 김정자씨의 표정엔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오늘 촬영을 위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신 할머니들 틈에 셋째 위승이를 업고 순번호를 드리는 사진반 반장님의 모습도 보인다.

오전 9시부터 나와서 기다리셨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조명을 설치한 후 촬영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곽대현 강사의 마음이 바빠진다.

촬영이 시작되자 고은주씨는 스크린 앞에 자리한 어르신들의 표정과 옷매무새를 챙기는 등 딸처럼 어르신들을 보살폈고, 부녀회 김남희 부회장님은 메이크업으로 조금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의 사진을 남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느라 분주했다.

부녀회 사무실이 빠르게 열리며 한 아주머니께서 힘겹게 할머니 한 분을 업고 들어 오셨다. 123동에 사시는 90세의 문필순 할머니와 따님이셨다.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환갑을 훌쩍 넘긴 따님이 비탈진 언덕을 넘어온 것을 생각하자 일순간 부녀회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문필순 할머니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포토줍마’ 회원들의 “고개 좀 돌려주세요!” 라던 가 하는 주문을 듣지 못하셨다. 서로 소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따님과도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모두 행복한 ‘찰각’의 순간이었다.

따님의 얼굴엔 어머니께 아주 좋은 선물을 한 만족의 미소가 비쳤고, 이날을 위해 준비한 수고와 정성을 한순간 보상 받은 듯한 표정이 일순간 부녀회 사무실 전체에 번진다.

당초 신청자는 18명이었으나, 총 32명이 장수사진을 찍으셨고 '포토줍마' 회원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포토줍마 회원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사진전시를 위한 준비를 했다.

그 동안의 모임을 통해 선별한 은행주공아파트를 테마로 개개인의 작품들과 매번 모임 때마다 모두 함께 모여 찍은 사진을 전시했다.

“아~ 이 날은 왜 내가 없지?”

“맞아! 우리 이 날은 출사갔었지?”

그간의 기억들이 사진을 통해서 새로워진다.



풀장가는 길 펜스에 걸어놓은 사진들은 지나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다. “102동 앞에 이런 놀이터가 있어?”

“와~ 이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문데, 이렇게 찍어놓으니 멋지네!”

항상 보는 풍경이라 감탄하지 못하고, 새로워 보이지 못했던 광경들이 네모난 사진 틀 안에서는 무한하게 새롭고, 경이로워 보인다.

매일 노는 놀이터, 화단 앞의 꽃, 베란다 넘어로 보이는 노을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시를 준비한 ‘포토줍마’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시를 보는 주민들에게도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찰각’ 이 한방의 셔터 소리에 시시각각 사라져버리던 은행주공의 시간들이 네모난 액자 안에 갇혀버렸다.

너무 멋진 사진들이 우리 엄마가 찍은 사진이라고 응원하는 가족들은 연신 감탄을 하고 첫 작품전시회에 가족들의 격려까지 받은 ‘포토줍마’ 회원들의 얼굴엔 뿌듯함으로 가득하다.

PM 02:00 북아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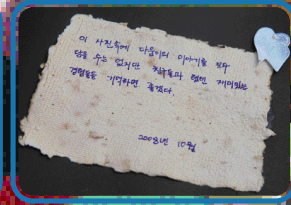
풀장환상 입구에 자주색 용단을 깔고 그 동안 만들었던 각양 각색의 책을 모아놓으니 그럴듯한 갤러리가 되었다. 대롱대롱 오브제북도 매달아 놓으니 지나가는 모두가 뭔가 하고 관심을 갖는다.

수업시간이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바쁜 걸음하던 주부들은 축제의 주인이 되어 다른 날보다 곱게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코텍스북, 롱북, 터널북, 한국식 바인딩, 미니앨범 등 책을 소개하는 이름표도 만들고 책이 잘 보이도록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쓴다.

수업시간에 만들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내용을 채워나간 책에는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재미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다. 문선정씨가 딸아이와 같이 만든 롱북에는 은행주공에 있는 단풍나무의 종류, 매미가 변태한 껍질 등 은행주공의 생태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솜씨좋은 이경진씨가 만든 미니앨범에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한눈에 보인다. 책의 외형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책을 책답게 하는 숨은 이야기들이 엄마가 만든 책을 더욱 소중하게 한다.

오후 1시부터 북아트 체험행사가 풀장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작은 손으로 쫄쫄쫄, 아이들은 실로 종이를 꿰매고 나무, 에펠탑, 알파벳 등 다양한 모양의 스탬프를 찍는 재미에 푹 빠졌다. 뒤에서는 반장 이영란씨와 이경진씨가 아이들이 수첩 만드는 것을 도와 종이에 구멍을 뚫고 실로 책을 묶어주고 있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마을축제는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실천의 장이었다.



PM 02:00 나만의 책 만들기 전시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만든 책이 풀장 벽에 걸렸다. 작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 전시는 모두 엄마들이 준비했지만 그래도 그 일등 공신은 어린이 작가들이다. 찹쌀떡볶이 기차 안에 무엇이 숨어있을까? 입을 커다랗게 벌린 사자가 왕 노릇하는 정글, 약봉지가 담겨있는 병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과 공룡이 그려진 웅장장군의 그림책 등이 4절 크기의 전시판 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진이가 만든 책은 일록달록 하트무늬 창에 리본도 달린 것이 공주님이 사는 성 같다. 찹쌀떡볶이 기차는 유진이가 만든 책들을 싣고 어디를 가는지 표정이 모험심 가득하다.



PM 02:00 켈트전시

처음 바늘을 만지고 실을 꿰서 만들었던 핀쿠션부터 마지막 작품 벽걸이까지 모두 모였다. 그 동안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만든 켈트 작품을 모아보니 전시대 위에 수북하다. 쌀쌀한 가을 따뜻함이 느껴지는 켈트 제품들은 구경하러 온 은행 주공 주민들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다. 파우치, 동전 지갑, 가방, 쿠션 등은 모두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것들이라 어느새 주부들의 손때가 배어 있어 더 정이 간다. '소품 판매 가능 문의 하세요~' 라고 붙여놓으니 작가들이 자신이 만든 예술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프리마켓 같다.

이제는 자신이 필요한 작품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만드는 주부들도 생겼다. 사진을 좋아하는 김순희씨는 사진반 모임이 나오는 친구에게 카메라 가방을 만들어 선물하기로 했다. 배움터를 통해 켈트에 입문한 반장 박은진씨는 이제 능숙한 솜씨로 바느질을 하고, 솜씨가 자라는 동안 켈트를 같이 한 다른 주부들과는 친해져 같이 천도 사러 다니고 실과 자투리 천을 나누어 쓰기도 한다. 켈트는 같은 종류의 작품이어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모양도 느낌도 다르다. 서로가 만든 켈팅 제품이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PM 02:00 한지공예전시

마치 온 동네가 이사하는 날인 마냥 큰 가구들이 온다. 제주장이나 서랍장과 같이 큰 직품들은 한지공예반 주부들이 풀장으로 들고 오기가 쉽지 않아 들직한 사존반의 광대현 강사나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주부들은 배치를 하고 누가 만든 것인지 이름을 붙여 놓았다. 부피가 크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한지공예의 특성을 고려해서 풀장 안쪽에 천막을 치고 자리 잡았다.

한지공예도 아이들을 위해 거울을 만드는 체험 행사를 했다. 거울 모양 틀에 한지를 찢어 붙이고 니스 칠을 하고 거울을 붙이면 자신만의 한지공예 거울이 완성된다. 한손엔 수첩을, 또 한손엔 거울을 든 아이들의 표정이 싱그러웠다.

한지공예수업은 항상 큰 가구들과 주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었다. 커다란 가구를 만드는 주부들의 큰 손만큼 맛있는 음식,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며 크고 단단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PM 02:00 전통혼례

연차근지 짝고 족두리를 한 신부 김순례 할머니와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이두형 할아버지는 결혼한 지 68년이 된 은행주공 120동 주민. 혼례가 있던 전날 밤 가슴이 설레어 잠을 설치셨다는 할아버지는 팔손을 흘쩍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한다. 7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임에도 신랑의 다정한 포옹에 새색시처럼 수줍어 얼굴이 빨개지신 할머니. 전통혼례를 처음 보는 꼬미들은 신기한 듯, 동네 이웃들은 부러움과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머리가 희끗해진 자제분들과 손자손녀는 이웃들의 정성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는 풍경.

이두형님과 김순례님의 결혼 68주년 기념 전통혼례는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한 「백년의 약속」팀과 은행주공 부녀회에서 준비하였다.

PM 04:00 어린이풍물패 공연

오후 2시, 삼채 장단에 맞춰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어린이풍물패의 길놀이가 시작되었다. 선생님의 깡거리 소리를 따라 장구와 북을 두드리며 객석을 지나 풀장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 무대 옆 파란 풀장 위에서 한바탕 난장을 벌인 후 무대 위에 자리를 잡았다.

“후~”무대라는 낯선 공간과 객석에 자리한 어른들의 모습에 긴장이 되었는지 웃음이 예쁜 예원은 긴 호흡을 여러 차례 내수었다. 풍물 첫 수업부터 거의 매시간 장구를 머리에 이고 벌을 서던 말뚝꾸러기 민이도, 설장구를 치며 자산만민해 하던 민서도 진지한 표정이다.

상쇠를 맡은 한솔이와 민정이가 앞에 단정하게 앉고 키가 큰 남자 아이들이 뒤에서 소리를 받쳐주자 풍물 소리에 풀장이 한바탕 들썩인다.

평상시에는 따로 연습하던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의 합동공연이라 그저 무사히 끝났으면 하던 바람과는 달리 호흡이 착적, 예상보다 멋진 공연을 선보이자 맨 앞줄에서 응원하는 엄마들은 열광했고 동네주민들도 ‘너석들 잘하네’ 하며 자랑스러워한다.

그동안 은행초등학교 운동장과 풀장을 오가며 풍물 연습보다는 모여서 이야기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느라 비뻤던 개구쟁이 녀석들의 모습과 수업시간마다 ‘밍했다’를 노래하지만 아이들을 혼내기보다는 함께 어울렸던 김순중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험기왕성한 아이들과 넉넉한 선생님, 흥겨운 우리 가락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순간이었다.



PM 04:30 어린이밴드 공연

나름 밴드답게 모자도 맞춰 쓰고, 검정 재킷에 룡부츠까지 한껏 멋을 부렸다.

여자 아이들은 엄마 화장품을 빌려 입술도 연한 핑크색으로 칠했다.

겉모습은 꽤 당차보이는 녀석들. 하지만 무대 옆에서 대기 중인 아이들은 초긴장 상태이다.

2주전 사랑방클럽축제에서 데뷔 무대를 선보인 블루스카이 팀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이 첫 무대인 화이트데이비드 팀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며 긴장을 달래본다.



무대 앞으로 달려 나온 동네 꼬마 친구들은 TV에 나오는 멋쟁이 가수를 구경 나온 듯 잔뜩 기대한 눈빛이다. 세린이가 드럼 스틱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자 기다렸다는 듯 신디, 기타, 베이스, 보컬이 합세하여 신나는 연주와 노래가 시작된다.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해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 봐.”

소영이의 힘찬 목소리와 일렉기타와 신디의 날렵한 선율, 베이스 기타와 드럼이 중심을 잡아주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풀장 위로, 숲속의 나무 위로,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이번엔 데뷔 무대에 선 화이트데이비드 팀. 기타리스트는 꼭 검정색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성빈이, 첫 무대에 모자를 맞춰 쓴 진영, 소운 오누이, 듬직한 드럼의 상훈이가 무대에 섰다. 오늘 공연에 함께하지 못한 다현이를 대신해 이현창 선생님이 신디 연주를 맡아주셨다.

“낯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어린양자 찾아 떠날래.”

시작하기 전 긴장하는 모습은 어디로 갔나 찾을 수 없을 만큼 멋지게 해내는 모습에 엄마, 아빠, 친구들 모두 박수 갈채를 보냈다.

무대에서 내려 와서도 아이들은 긴장이 가시지 않았고 쑥스러운지 어색하게 웃었다. 5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되는 연습에 지겨울 수도 있었을텐데 묵묵히 연습하니 오늘같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축제에 초대 받았어요~

어린이밴드가 9월 27일, 28일 사랑방클럽축제 기간에 초대 받았다. 깜짝한 여자 아이들의 무대라 관객들도 기대감에 가득찼고 많은 카메라가 아이들을 찍기 위해 무대 앞을 가득 메워 많이 떨리기도 했을텐데,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량을 한껏 발산했다.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앙코르 요청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연습한 곡이 한 곡뿐이라 다음을 기약하며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5월 말 은행주공에서 있었던 벼룩시장에서 사랑방클럽 공연이 자리를 빛내주더니 5개월 뒤 은행주공의 아이들이 사랑방축제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PM 05:00 기타공연

은은하게 울리는 통소 소리와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사자춤 그리고 화려한 상모춤과 시물놀이, 은행주공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가 전순필씨와 우리소리연구회 솟대 회원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스페인, 일본, 몽골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팀이지만 이웃과 함께 동네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 외에도 어린이밴드를 지도해주는 이현창 선생님이 소속된 자율학습 밴드와 윈드매니아 색소폰 클럽의 공연 터질듯 활력 넘치는 전자기타의 소리와 가슴 한 겹을 흔들어대는 색소폰 소리는 마을 축제 가 모두 끝나고도 한참을 마음 깊이 울리고 있었다.



Reborn: 은행주공 다시 태어난다.



- ① Reborn : 다시 태어나다.
- ② Ribbon : 리본의 매듭처럼 단절된 공간과 공간을 이어준다.
- ③ Ribbon : 은행주공아파트주민께 드리는 선물
- ④ Ribbon : 단지 내 리본모양의 보행동선, 그리고 그 매듭부분에는 커뮤니티센터/ 티하우스가 위치

한 여름 온 종일 시끄러운 매미는 어떤 이에겐 소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에겐 아름다운 자연의 외침으로 들리기도 한다. 외지인에겐 자연 생태를 간직한 매력적인 은행주공 아파트가 주민들에겐 낡고 주차난이 심각한 재개발의 대상이다. 한 발자욱 떨어져서 본 풍경은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모습과 사뭇 다르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학생들이 바라본 은행주공 모습과 그들의 제안이 궁금하다.

장진욱(경원대 도시계획과 4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 제 전공수업인 도시설계론 현장수업으로 은행주공아파트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플장환상 프로젝트를 직접 보기 위함이었죠, 저는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숲속의 아파트, 작은 오솔길들이 매력적이었고 각 동마다 붙여진 예쁜 이름들과 아파트리는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문화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지난 학교생활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배치하는 계획위주의 도시계획만을 생각하던 제게 완전히 다른 도시계획, 도시설계의 의미를 알게 해 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졸업작품전에 대한 구상을 은행주공아파트로 잡고 재설계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 1월에 저를 비롯해서 한순욱, 임권택, 김경엽이 의기투합하였고,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관련 전공자로서 은행주공 건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은행주공의 특징을 뽑는다면 여러 가지 건축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경사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각 지형에 맞게 탑상형, 판상형, 저층형태가 같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의 아파트가 획일적인 형태를 이루는 반면에 은행주공은 자연 곳곳에 지형에 알맞은 주동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숲속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Q

설문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은행주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80년대에 맞춘 주차수요를 현재는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단지 위, 아래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운동장 지하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비용 또한 상암사와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입니다. 풀장환상 등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풀장과 관리사무소 외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몇 개의 동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단지 곳곳에 배치하여 부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이 수개의 작은 공동체들이 모일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만들어 일종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작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 알파룸(일종의 동주민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공간)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주동 곳곳에 커뮤니티시설을 끼워넣고, 학교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관리사무소와 통합 개발하여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단지주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건축물의 노후화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입을 통해 난방, 보일러, 온수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도 판상형 같은 경우, 편복도형으로 되어 있어 한 개의 복도를 모두가 같이 쓰다보니 프라이버시 문제 또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건축물의 리모델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편복도를 전용면적으로 흡수하고 바깥에 두 가구 당 하나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며, 발코니도 돌출시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좁은 1층 통로는 필로티 형태로 만들어 개방감 있고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면 서 만나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Q

은행주공 Reborn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무엇인가요?

A

은행주공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남한산성의 산세를 이어받은 자연환경입니다. 나무가 빼곡한 자연 속에서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고, 산을 뛰어놀고 텃밭며 천연의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가 전체적으로 경사지에 위치하였는데 이 경사를 단지 오르내리기 힘든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로 옆에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미끄럼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바로 이것 '미끄럼틀 네트워크'입니다. 숲 속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면서 재미있게 뛰어노는 단지 아이들이 '미끄럼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조르는 그러한 단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세요? ^^

Q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주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A

제가 유년기를 보냈던 군포의 아파트는 얼마 전에 재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오고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 왠지 슬퍼지더군요. 단지 옛것을 지키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개발 논리만으로 자기의 상승, 더 좋은 시설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동의 코엑스와 인사동의 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새로운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서울에는 인사동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한 가구의 지분이 가장 넓은 곳이 은행주공아파트라고 합니다. 아마도 숲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더 울창한 숲과 더 좋은 이웃사촌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주공에 사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은행주공의 나무들

은행주공 아파트에는 나무가 많아요. 가까운 언덕이나 산 같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가 산과 어우러져서 마치 산자락이라는 치마폭에 감싸 안겨 있는 듯 보이지요. 바로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작은 숲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산자락과 아파트 안의 작은 숲,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관계를 맺고 있어서, 숲에서 사는 다람쥐와 청서(청설모) 같은 야생동물과 딱따구리 같은 새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답니다.

3월 어느 날 갑자기 창밖으로 청딱따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서 은행주공의 봄은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한풀 꺾이고 따스한 봄바람이 느껴질 때, 명자나무가 먼저 꽃을 피우고 이어서 박태기나무 뱃나무 조팝나무와 겹복숭아 황매화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우다가, 봄이 무르익으면 정문 진입로의 철쭉이 활짝 피어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답니다. 흔히 라일락이라고 알고 있는 수수꽃다리의 진한 향기가 바람결에 창문으로 실려 오고, 곧이어 종모양의 하얀 목걸이 같은 쪽동백 꽃이 피어요. 여름이 되어 은행주공 나무들의 잎사귀가 우거지면, 숲이 가깝고 나무가 많은 은행주공은 더운 여름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 보다 기온이 몇도 썩 낮지요. 그것은 잎이 광합성작용을 할 때 증산작용으로 뿜어내는 수증기가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가을, 노랗게 물 들으며 단내를 풍기는 계수나무를 비롯하여 은행나무와 여러나무들이 단풍들어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우수수 잎을 떨어뜨리면서 얇은 하늘과 길바닥을 알록달록하게 수놓습니다. 고개를 들어 멀리 산을 바라보면 산들도 곱게 물들어갑니다.

겨울에 다른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렸을 때 비로소 바늘잎 모양을 가지 침엽수들이 오로지 저희들끼리만 푸른 자태를 뽐내지요.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등 소나무가족을 비롯하여 전나무 주목 독일가문비들이 함박눈이 내릴 때마다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눈을 가득 안고 서있습니다. 그 사이로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배고픈 새들이 지저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귀엽답니다.

딱따구리 동지동의 오동나무 이야기

은행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청딱따구리가 집을 지었던 오동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 이름을 붙여 줄때 12동 근처를 딱따구리 동지동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청딱따구리는 나뭇잎도 나기전인 이른 봄에 날아와서 은행주공의 이 숲 저 숲을 날아다녀요. 딱따구리는 한번 사용한 동지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딱따구리가 한번 사용한 동지는 동고비 같은 작은 새가 진흙을 물어다 작게 리모델링하여 재사용해요.

오동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나무와 잎, 꽃이 모두 오동통해서 오동나무라고 하였대요. 이파리가 아주커서 어릴 적에 갑자기 비가 오면 오동나무 잎을 따서 머리에 쓰고 뛰었습니다.

옛날에 딸을 낳으면 시집갈 때 장을 만들어 주기위해 뒤뜰에 오동나무를 심었는지요?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라서 12년 정도만 카우면 장을 만들 수 있대요. 빨리 자라다보니 나무가 무르고 벌레가 잘 먹을 수 있어서, 뒷마당 골목 뒤에 심어서 연기로 벌레를 쫓는 거지요. 시집간 딸은 친정 부모가 만들어주신 오동나무 장을 쓸고 닦으며 부모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신비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양버즘나무 이야기

은행주공에는 양버즘나무도 많아요. 그중에서도 120동 뒷마당에 있는 양버즘나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랍니다. 10여 년 전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뒷마당 입구에 버티고 서있는 양버즘나무를 기계톱으로 잘라 버렸습니다. 기계톱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몰려나가 나무를 더 이상 못 자르게 막아서서 다행히 다른 나무들은 생명을 건졌지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양버즘나무가 결가지를 내려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의 신비로운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면서 말이지요.

122동 뒤편에 날씬한 양버즘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뽕뽕이 심겨진 양버즘나무와 메타세쿼이아가 서로 경쟁을 하느라 부피생장은 못하고 키만 자라고 있지요. 나무들이 어렸을 때 속삭아 주었다면 저런 피 말리는 경쟁은 안 해도 되었겠지요.



나이테가 안보일 정도로 빨리자라는 은사시나무 이야기

은백양나무와 사시나무의 교배종으로 은수원사시, 현사시나무라고도 해요. 환빛이 도는 수피에 모양의 무늬가 있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나무이지요. 일제침략과 6.25전쟁등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발된 속성수로 나이테가 잘 안보일 정도로 빨리 자라요. 성장속도가 빨라 호흡량이 많으므로 길고 옆으로 납작한 잎자루를 이용하여 열을 빨리 털어 보내요. 가벼운 바람에도 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와 비유되어 '사시나무 떨 듯 한다'는 말이 생겨났대요.

상가에서 108동 넘어가는 오솔길 안쪽에서 잘라놓은 은사시나무를 볼 수 있는데, 키 큰 은사시 나무가 태풍이 불 때 쓰러지면 사람이 다치거나 할 수 있기에 염려하여 베어냈습니다. 봄에 말리 날리는 솜털 같은 씨앗도 조금은 귀찮지요.





공룡 시대를 살았던 화석나무 메타세쿼이아 이야기

은행주공은 아파트 단지가 넓어서 메타세쿼이아도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103동 앞 매미 숲의 구멍 옆에도 몇 그루 있지요, 주로 가로수나 공원수로 심는 나무인데 중국이 원산지이구나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통해 들어 왔다고 해요, 미국에 자라는 세쿼이아라는 나무보다 뒤에 나타났다는 의미로 메타세쿼이아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은행나무처럼 공룡시대를 함께 살았던 화석나무예요, 침엽수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수입니다. 비슷한 나무로 낙우송이 있는데 낙우송의 잎은 어긋나기 하고, 메타세쿼이아는 마주나기 예요, 물가에서 잘 자란다하여 북한에서는 수삼 나무라고 한 대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계수나무 이야기

어렸을 적 '반달' 노래를 부르면서 손동작 놀이를 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겠지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구절을 불러 보았을 거예요, 원래 달 속 계수나무의 시초는 중국이고 중국에는 '계림'이라고 하는 계수나무 숲이 있지요, 그런데 계림에 있는 계수나무와 우리나라에 있는 계수나무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나무랍니다. 중국에 있는 계수나무는 흔히 수정과에 사용하는 계피가루를 내는 나무이고, 우리나라의 계수나무는 많은 잎이 동글동글한 일본에서 들어온 나무랍니다. 은행주공에 있는 계수나무도 바로 일본원산의 나무인데, 가을에 노랑게 단풍들 때 계수나무 아래를 지나가다 보면 달콤한 냄새가 나지요.



향기도 좋고 꿀도 많은 아까시나무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까시이라고 알고 있는 나무는 진짜 이름이 아까시나무랍니다. 아까시나무는 원래 북아메리카에 살던 나무인데 다른 나무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산림녹화와 땀감공급용으로 많이 심었어요, 일제시대 일본인이 처음 들여와 전국에 퍼뜨려 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망치는 몸살 나무라고 많이 생각 했었는데 요즘은 재목으로서 많이 각광 받고 있어요, 꽃이 피면 향기도 좋고 꿀도 많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아서 30~40년 밖에 못산대요, 어릴 적 아까시나무 잎을 따서 가위 바위 보를 하면서 이긴 사람이 작은 잎을 한 장 씩 튕겨내는 놀이도 하고, 작은 잎을 주주룩 머리를 말아 올려 파마를 하기도 했지요, 또 잎을 한 장씩 때내며 '사랑한다' '사랑 안한다' 점을 치고 했답니다. 120동 뒷산 오솔길 옆에 아주 멋지게 자란 큰 아까시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를 칭칭감아 올라가며 자라는 참 이야기

대표적인 덩굴식물로서 다른 나무를 압박하며 감아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 시켜서 결국에는 나무를 고사시켜요, 생장속도가 빨라 산사태지역 사면 복구, 시방용으로 심기도 해요, 여름에 은행주공의 나무들을 타고 올라간 참꽃을 보면 붉은색을 띤 보라색 꽃이 아주 아름다운데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잎에는 해독 지혈작용 있으며, 뿌리에 녹말이 많아서 예전엔 구황식물로 요즘엔 칩방면 칩차 칩증등으로 많이 이용하지요, 잎이 세장씩 모여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잎자루 하나에 같이 붙어 있는 1장의 잎으로 이런 잎을 3출엽이라고 해요, 가지가 칭칭 감아서 참, 또는 가르면 참 하는 소리가 나서 참이라고 했대요.



아름다운 색깔이 든 잎사귀 단풍나무 이야기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고 열매는 종류마다 각도가 다른 부메랑처럼 생겼지요. 열매가 다 익으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씨앗이 떨어지면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라처럼 빙글 빙글 돌며 멀리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하면 아름다운 색깔이 든 잎사귀를 떠올리게 되지만, 4~5월에 아래로 처지면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도 자세히 보면 아주 귀엽습니다.

단풍나무는 잎의 갈라진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은행주공에는 단풍나무, 잎이 오리발을 닮은 중국단풍, 캐나다 국기에 그려진 은단풍, 신나무등이 있어요.



열매로 기름을 만드는 쪽동백 이야기

5월 늦은 봄에 은행주공을 건다가 문득 코끝을 스치는 향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보면 머리위로 하얀 종모양의 통꽃들이 목걸이 모양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쪽동백의 꽃입니다. 쪽동백은 열매를 기름 짜서 동백기름 대신 사용하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동백나무는 남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서민들은 쪽동백나무나 생강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동백기름 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와 낙엽활엽수인 쪽동백은 전혀 다른 식물이지만 열매의 쓰임새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붙어 있는 말라비틀어진 잎을 살짝 떼어보면 잎사루 속에 내년엔 싹틔울 겨울눈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수수꽃다리 이야기

영어이름은 '라일락' 프랑스 이름은 '리라'라고 하는 이 식물의 우리이름은 '수수꽃다리'랍니다. 라일락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우리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 끝에 피는 꽃이 수수꽃대를 닮았다 하여 '수수꽃다리'라고 하였어요. 예전에는 정향나무나 개회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각각 다른 종류로 분류해요. 1947년에 미국인이 북한산 백운대에서 채취해간 털개회나무를 품종개량 하여서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수입하고 있지요, 우리 아파트에도 수수꽃다리가 많아서 5월이 되면 작은 바람에도 아파트 전체에 향기가 퍼진답니다. 은행중학교 후문 올라가는 길에서 볼 수 있어요.



귀한 한약재로 사용되는 산수유 이야기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친구들이 개나리 진달래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개나리 진달래보다 더 먼저 꽃피우는 식물이 인가근처나 들에서는 산수유고 산에서는 생강나무랍니다. 둘은 꽃모양도 서로 비슷하지만 생강나무의 이파리는 마치 공룡발바닥 비슷하게 생겼고 살짝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향이 나요. 산수유는 잎도 타원형이면서 잎맥이 나란하게 옆으로 흘러서 큰 차이가 있어요. 산수유는 귀한 한약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약재가 귀할 때는 산수유 몇 그루 만 있어도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 하여 대학나무라고도 하였어요. 가을에 길쭉한 열매가 빨갛게 익지요.

겨울 배움터 겨울나기

가을에 노오란 은행잎들은 어느새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은행주공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은행나무처럼

은행주공의 배움터 강좌들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엄마와 만드는 동화책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동화나라로 재탄생했어요



다시 찾은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 사무실!

엄마 손을 꼬옥 잡은 아이들이 하나 둘씩 들어온다.

문화배움터 20주 교육이 끝난 후에도 수요일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 함께 동화를 읽고 나만의 책을 만드는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돌아가며 그 날의 동화책과 준비물을 준비해 온 다는 것이다. 이제 나만의 책 만들기 시간은 토마토선생님과 함께하는 동화나라가 아닌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동화나라로 재탄생했다.

112동에 사는 동회도 새로운 동화식구로 합류했다. 동회어머님께서 재작년 풀장환상때 나만의책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던 차에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꾸준히 이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하셨다고 한다.

둥~둥~둥~ 계속되는 북소리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아이들의 풍물소리

11월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연습실에 들어서니 이미 익숙한 얼굴의 두 분이 보이신다. 장호와 성준이의 어머니이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은행주공아파트 근처에서는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부모님들끼리 회의를 거쳐 두 분씩 조를 짜서 돌아가며 이곳 연습실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한다.

연습실을 들어서니 장호, 민서, 민철이, 성준이, 세연이, 한솔이, 민정이...

그리고 낯 선 한 명이 더 있었다. 그 아이 이름은 윤미래!

유치원때 풍물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 성준이가 장구를 친다는 말을 듣고, 함께 배우러 왔다고 한다.

매너 만점 세연이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장구를 조절해주고, 다른 남자아이들도 은근히 신경써주는 눈치다. 번잡한 운동장에서 연습할 때 보다는 훨씬 집중되는 공간이라 아이들의 악기가 내 뿜는 소리도 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조화롭다.



추운 겨울 켈트 제품으로 따뜻하게~

부녀회의 도움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켈트반이 개설되었어요

11월 6일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켈트 수업.
낮익은 주부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한 두 명 새로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다.

은행주공 부녀회 사무실이 아닌
자치센터에 주부들이 모이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겨울에도 지속적인 모임을 원했던 켈트모임 식구들이 은행주공 부녀회와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에 주민자치센터에 켈트반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켈트 수업에는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부들 9명이 자리잡고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늘에 손이 찢리고 도안을 잘못 그리던 시절은 이제 옛말.
능숙한 바느질 솜씨로 자신만의 개성있는 켈트 제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 그 또 하나의 사진

포토줍마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눈, 시선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마을잔치가 끝나고 3주 뒤 금요일 아침 10시 은행동 동사무소 컴퓨터실.
반가운 얼굴들이 다시 모였다.
그 동안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어오던 수업은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금요일 아침으로 일정이 바뀌었다.
사진을 찍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후보정 작업에 대한 욕심도 생긴 포토줍마 회원
들은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수업 장소를 물색했고, 다행히 은행2동 동사무소에서
적합한 환경을 발견했다.
은행주공 주민인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컴퓨터실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은 낯선 컴퓨터 사용법과 키보드, 히스토그램이니, 레벨이니 어려운 용어 투성
이지만, 하나하나 채워가며 조금씩 달라지는 사진처럼 포토줍마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눈, 시선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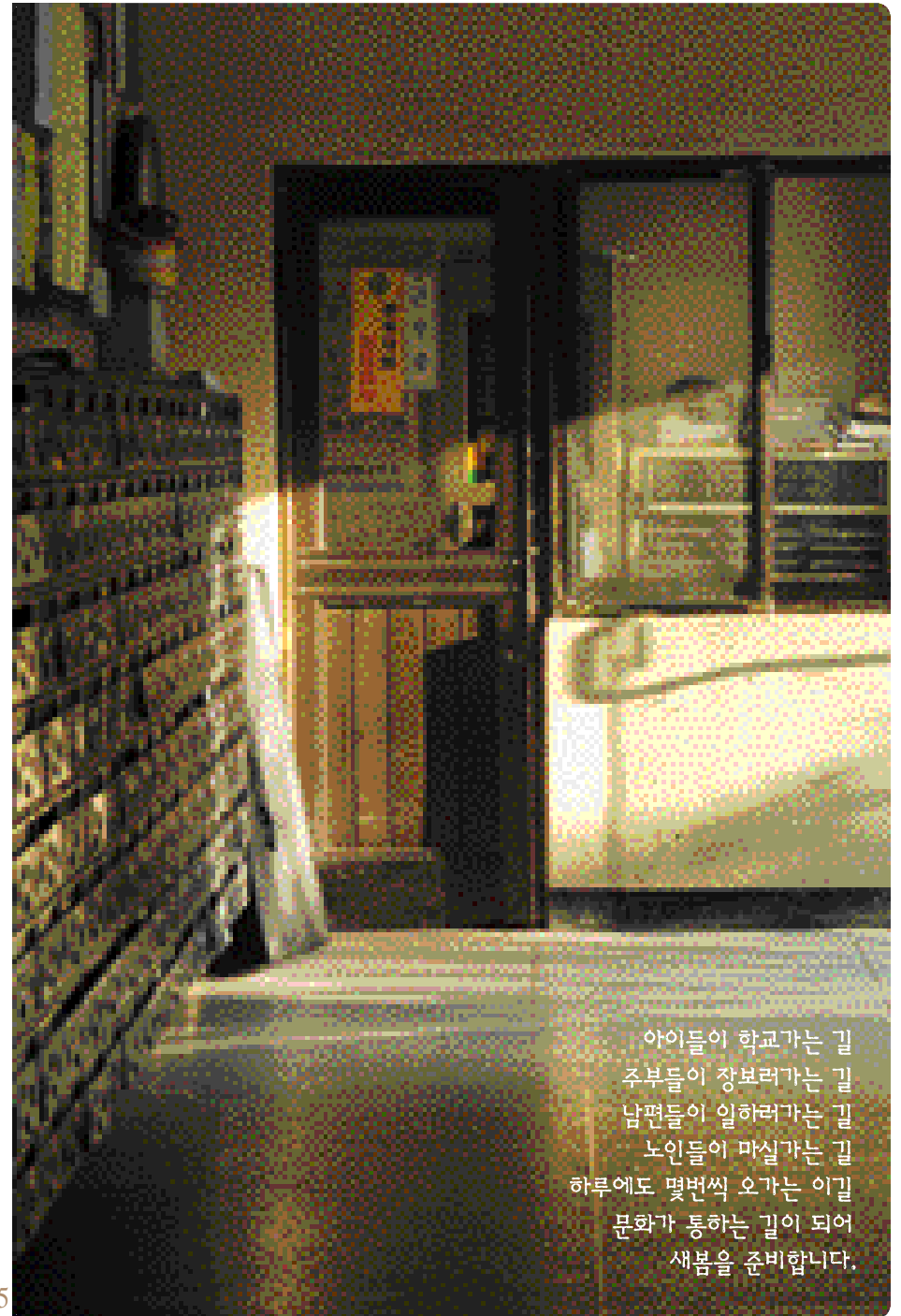
한지공예의 인내력은 겨울도 이겨내~

부녀회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주부들의 웃음 소리



11월 화요일 오전 은행주공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
주부들의 웃음 소리, 달그락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여전히 부녀회 사무실은 시끌벅적하고 공예품들이 자리를 한껏 차지하고 있다.
이번엔 무엇을 만드는지 살폈더니 지인들에게 선물 할 작품이란다.
확실히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들보다는 이음새를 붙이는 솜씨나,
문양을 파는 솜씨가 한결 좋아졌다.

오늘은 부녀회 고문 김미숙씨가 집에 있는 금색 한지를 이용해서 파은
문양이 다른 주부들에게 인기 절정이다. 고정적인 색의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주부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모양이다.
처음 조각칼을 손에 쥐고 힘겹게 문양을 파던 주부들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어
느덧 주부들에게는 한지공예가다운 품모가 느껴졌다.



아이들이 학교가는 길
주부들이 장보러가는 길
남편들이 일하러가는 길
노인들이 마실가는 길
하루에도 몇번씩 오가는 이길
문화가 통하는 길이 되어
새봄을 준비합니다.

문화배움터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부녀회와의 만남

2009년 시작과 함께 다시찾은 부녀회

2008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종료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클럽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09년의 시작과 함께 부녀회 사무실을 찾았다.

방문한 날이 금요일이어서 사진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온 이상덕 부녀회 부회장과 상대원시장 켈트 모임에서 강의를 끝내고 돌아온 강현희 부녀회서기, 문화배움터 책임실무자였던 이화자 부녀회총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김남희 부녀회 회장님을 만났다.

“작년에 뵈고 처음 뵈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과 몇 주만에 만난 것이기는 했으나 해가 바뀌고 공식적으로 만난것은 처음이다.
이내 모두 반갑게 인사를 받아 주며 안부를 나누었다.

문화배움터를 하게된 이유?

오늘 인터뷰 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바로 궁금하던 질문을 던졌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왜 하려고 하셨어요?”

이화자 총무가 멋적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사실 특별한 생각은 없었어요. 2007년에 ‘풀장환상’을 하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에 부녀회에서 논의한 끝에 그 동안 해보고 싶었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으로 준비해 보기로 결정했죠”

늘 웃는 모습으로 부녀회의 큰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덕 부회장이 옆에서 한마디 거든다. “좋잖아요 이웃간에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런 활동을 계기로 서로 친해지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그게 좋아서 하기로 한거죠”

동네 아주머니들답게 이야기가 한번 터지니까 실 틈없이 처음 준비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힘들었던 일들이 화두가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온갖 힘든 일들을 도맡아 왔던 강현희 서기가 입을 뗐다.

“사실 일이 힘든 건 별로 없었어요 성남문화재단이나 사랑방문화클럽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저것 배운다 생각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분들,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조차 성남문화재단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름 봉사한다 생각하며 시간 쪼개고, 전화 돌리고, 교육시간에 맞춰 아이들 실어 나르고, 약기 나르고, 간식도 준비하고 했던건데... 재단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하니까 마치 부녀회가 이걸 통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받으니까 당연히 이런 저런 잔일을 해야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확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은 것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행사에 쓰이는 거구 부녀회 분들은 모두 순수하게 봉사하는 건데...”
“사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 행사가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건데 아직 이웃간에 가깝지 않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애.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너무 속상해 하지마”하며 김남희 회장이 다독여 준다.



이상덕 은행주공 부녀회 부회장



강현희 은행주공 부녀회 서기

가장보람되었던 것은?

분위기도 바꿀 겸 질문하나를 톡 던져 봤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뭔가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이상덕 부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 한다. “우리 애 성빈이 말이에요. 기타 치고 싶다고 해서 밴드에 참여 시켰는데 어느날 보니 곧잘 치는 거예요. 특히 마을축제때 무대위에서 밴드 공연을 하는데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호호호” 말을 맺으며 특유의 감칠맛 나는 웃음소리로 모두의 마음을 밝게 해준다.

사실 어린이 밴드만이 아니라 어린이 풍물도 그렇고 어른들이 참여했던 한지공예, 사진 전시회, 킷트, 북아트 모던계 대단했다. 축제를 구경온 분들이 하나같이 “5개월 남짓 배웠는데 어쩔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네”하며 감탄하는 소리가 행사장 곳곳에서 들렸었다.

이화자 총무는 “저와 같은 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그날 전통혼례를 하셨거든요. 행사 전날 어찌나 설레었는지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마음한편에 허름한 풀장에서 전통혼례를 하는데 좀 어색한 것은 아닐까? 괜히 어르신 소개했다가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하며 이런 저런 걱정을 했는데 전통혼례 진행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다 훈훈해지더라고요. 행사 끝나고 어르신과 가족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지... 그 날이 가장 흐뭇하고 보람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사람들의 오해와 곡해 때문에 속상해 하셨던 강현희 서기는 뜻 밖에도 동네사람들 때문에 가장 보람되었다고 한다. “이번 강좌를 하면서 새로운 엄마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 동생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술선수범해서 반장을 맡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을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기도 했고, 역으로 사람 때문에 가장 보람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다.

동네 문화공동체란 무얼까?

문득 ‘마을 공동체’란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성남문화재단의 프로젝트 명칭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다.

방금 부녀회 분들이 이야기 한 것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의 핵심이 아닐까?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창조하며 자신의 삶이 발전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문화로 공헌하는 것. 문화를 통해 이웃과 소통의 삶을 나누는 것.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아니다. 단지 이웃과 함께 문화예술을 배우고자 했을뿐인데 그들의 기억속에는 문화공동체 사업의 핵심적인 것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좋은 강사를 찾고, 행사를 기획하는 등 실무기획력 그리고 공간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2009년에는 더 잘 하실 수 있었어요?”

“한번 경험해 봤으니 더 잘하지 않을까? 호호호”

“지나고 나면 소중한 기억이고 재미있었는데 준비하고 진행 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에휴 잘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도 이번에는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각 반장들과 함께 준비하면 훨씬 수월할거야. 이렇게 해가 거듭되면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김남희 은행주공 부녀회 회장



이화자 은행주공 부녀회 총무

새로운 창조를 꿈꾸는 새싹

이야기를 마치고 부녀회 사무실을 나선다.

부녀회 임원들은 남편과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관리사무소 시계탑 너머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올려다 본다.

울긁불긁, 알록달록 예쁜 단풍과 노오란 은행잎으로 울창했던 숲이 가느다란 가지만 삐죽삐죽 뻗은 채 남아 있다. 저 숲 땅속에는 지난 여름 푸르르게 성장하고, 가을에 멋지게 열매를 맺었던 기억을 간직한 채 또 다시 새로운 창조를 꿈꾸는 새싹이 꿈틀대고 있으리라.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풀장환상 2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최 :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

후원 : 성남문화재단